



Gsef 2013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3

5-7 November 2013 | Seoul, Korea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지역 거버넌스 :
서울 동북4구의 사례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 경제학)

2013년 11월 6일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지역 거버넌스: 서울 동북4구의 사례

세 가지 검토 주제

I. 개념 논의에 대한 검토:

사회혁신과 Social Entrepreneurship

II.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한국의 사회적 경제

III. 지역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 서울 동북4구의 사례



1. 개념논의에 대한 검토:

1. 사회혁신의 개념과 특성
2. 사회혁신과 사회기업가 (social entrepreneurship)



1. 사회혁신의 개념과 특성



사회혁신 개념

1. **동학 (dynamism), 전환/변화 (transformation/change)를** 설명하는 개념
 - 경제동학의 분석에서 기술혁신개념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동학(위기)을 설명하는 것처럼 사회혁신은 사회동학 - 진화, 위기, 전환-을 분석하는 개념
 - 사회변화를 의미.. 조직과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집합적 동학 (Bouchard, Marie J. 2013, 273).



사회혁신 개념

2. 다면적/다중적이고 다소 모호한 개념

- 사회적 동기나 의도, 법적 범주로서 사회적 부문, 사회적 문제,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하고 다른 내용들을 설명/묘사하는데 사회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 (James A. Phills Jr., Kriss Deiglmeier, & Dale T. Miller, 2008)

: 미국 대법관 포터 스투워트가 포르노를 설명하면서 든 정의방법<Potter Stewart approach> 즉 "딱 부러지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것을 보면 단번에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접근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혁신 개념

3. 필요 (needs)나 문제 (problems)와 관련한 정의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음.

- 정의, 공정성, 환경보전, 건강증진, 문화예술, 교육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나 필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컨센서스가 존재
- 2003년 봄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사회혁신센터에서 발간한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창간호 편집자의 글에서의 사회혁신 정의

"사회적 필요와 사회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지원하는 과정",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보다 더 유효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거나 더 공정하며 거기서 창출된 가치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귀속되는 새로운 해법 자체"



사회혁신의 특성

1.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의 **원리, 제도, 법안, 운동** 이들의 조합!
 - 사회혁신은 특정한 생산물이거나 생산과정, 기술일수도 있으나, 특정한 생각이나 원리, 제도나 법안, 사회운동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방식 혹은 이런 것들의 일정한 조합일 수도 있음. 실제로 많은 사회혁신들은 micro-finance처럼 이들 요소들의 조합물.
 - 특히 **공공재문제의 해법**
: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대안. 공공재의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달리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혁신이 중요해짐.



사회혁신의 특성

2. 부문간 **경계 허물기 (Border-crossing)**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 사회기업가나 사회기업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문(기존 비영리조직, 대기업, 정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사회혁신의 특성

3. 체제 /시스템 전환과 연관되는 새로운 거시 발전모델의 요소, 맹아 (대안적 발전모델?)

: 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맞아 자신을 재구조화하는가와 관련되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는 새로운 사회혁신이 풍부하게 이루어짐

- 현재의 위기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모델의 위기(작업조직, 고용, 국가, 재정, 세계경제, 환경 등). 위기의 시대에 거시-사회규칙들(시장, 국가, 단체협약들)이 동요하면서 새로운 실험과 혁신의 기회/계기가 열림. 역사적으로 기존 발전모델의 위기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출현을 자극하고 그 경로의 대한 크고 작은 모색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회혁신이 일어나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자 기회가 됨.

(Bouchard, Marie J. 2013, 8).



2. 사회혁신과 사회기업가 (social entrepreneurship)



사회혁신과 사회기업가 (social entrepreneurship)

- Social Entrepreneurship

- : 새로운 사회운동 (**new activism**)으로서 **사회기업가를 통해 비영리부문, 민간, 공공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시스템과 생태계**를 지칭 (Keohane, Georgia Levenson, 2012:1)
- 사회혁신과 마찬가지로 사회기업가주의 역시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간 경계를 넘어 서로 섞고 엮이는 연결고리 (**nexus**)에서 형성, 발전
- 사회혁신가 (social innovators), 공공기업가 (public entrepreneurs), 시민기업가 (civic entrepreneurs)로도 불림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 the Office of Advocacy, 2008)
- 두 용어는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로 혼용되며 사용되는데, 사회혁신 개념이 사람이나 조직보다는 혁신 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가 가능 (James A. Phills Jr., Kriss Deiglmeier, & Dale T. Mille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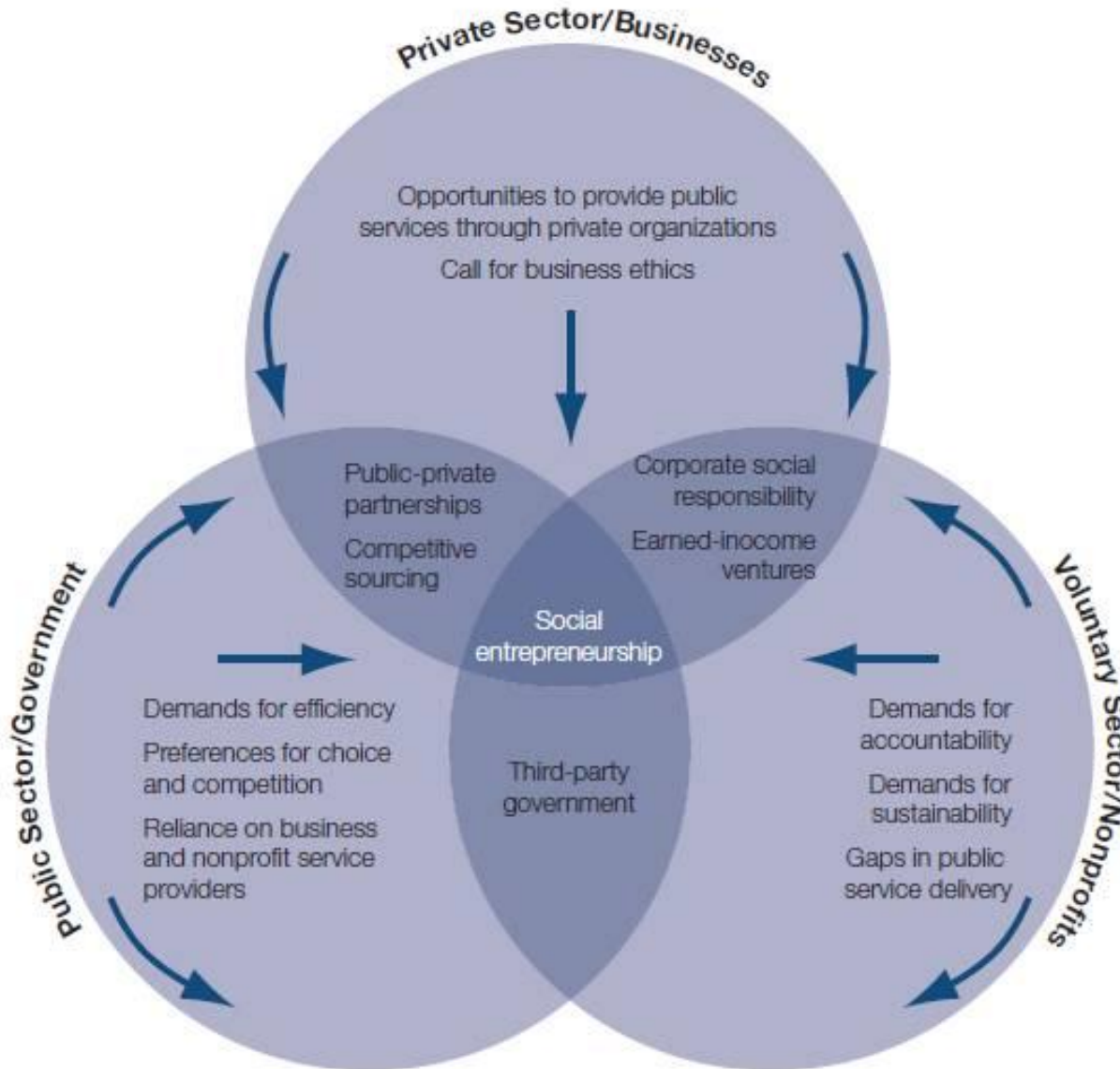


사회혁신과 사회기업가 (social entrepreneurship)

- 사회혁신이란 관점의 장점

- : 사회혁신이 부문, 분석수준, 방법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효과를 낳은 **변화의 전략과 기술, 이론 등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함. (James A. Phills Jr., Kriss Deiglmeier, & Dale T. Miller, 2008)
- 사회기업가와 비교해서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혁신에 관한 기존 이론적 논의들의 도움을 받아 개념이 보다 엄밀하고 일관성을 지니고, 사회변화의 새로운 경로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유리함
- 사회기업가라는 개념은 **비영리부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공부문과 영리부문을 배제하고 비영리부문에 한정되는 경향**

Figure 6.2 Trends Pushing the Three Sectors to Blur Traditional Roles: Social Entrepreneurship Emerges in the Growing Intersection



부문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침투와 혼합 경향이 나타나면서 사회기업가주의가 발흥. 사회기업가도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이고 동태적인 (dynamic) 과정이 핵심



II. 사회적 경제의 의의와 한국의 사회적 경제

1.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실



1. 사회 혁신과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1.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과 격차확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현. 지역 차원에서 생활조건, 일, 영역, 도시계획과 공공정책의 실행에까지 구조적 영향과 변화를 주도하면서 중요한 **사회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Bouchard, Marie J. 2013, 9)
-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그 **본성 상 통합과 융합, 경계넘어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국가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연구자와 사회적 경제 주체간 연대 등**
- 사회적 경제에 연구는 당연히 학제적 통합적 개념화와 이론화 필요 (Bouchard, Marie J. 2013, 13-14)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김선욱 감수
인기순 옮김



WHAT MONEY CAN'T BUY

지난 수십 년간 가격·교육·환경 같은 전통적 가치까지 파고든 시장지상주의를 도발적 문제제기와 치밀한 논리로 파헤친다. 우리 삶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한 흥미진진한 철학적 논쟁

와이즈베리
WILEY-BLANKET

하버드대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장신 옮김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하버드대 학생들은 정의를 어떻게 배우는가?

대년 천여 명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연속 수강하는 권위의 명강의! 자유지상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 롤스까지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통치는 도덕적 일레머에서 무엇이 좋은 일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역작! 하버드대 전 세계에 최고의 강의실을 개방한다!

Michael J. San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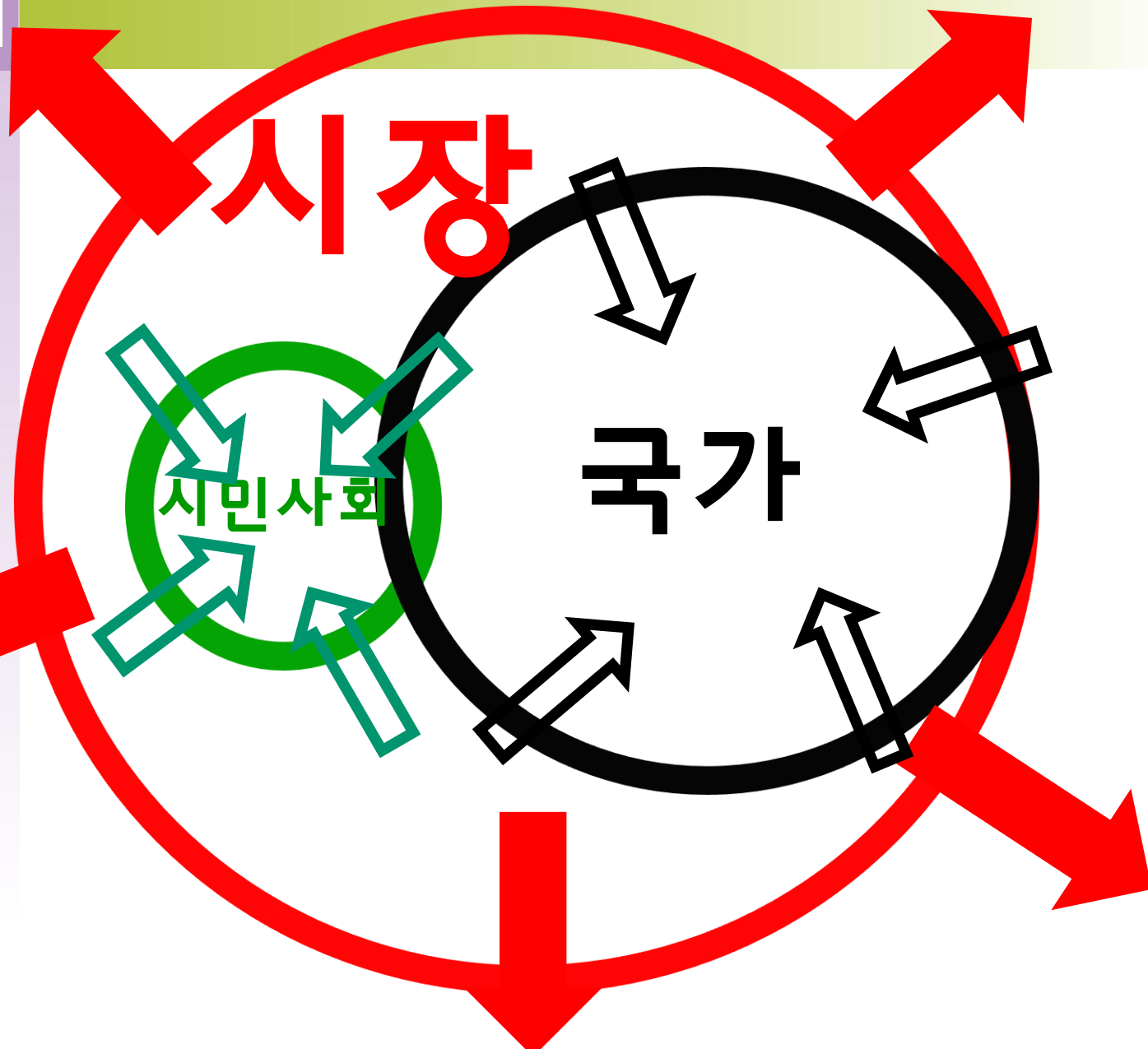
A wide-angle photograph of a large lecture hall filled with students. The students are seated in rows, facing a stage where a speaker is visible. The room has high ceilings and large wind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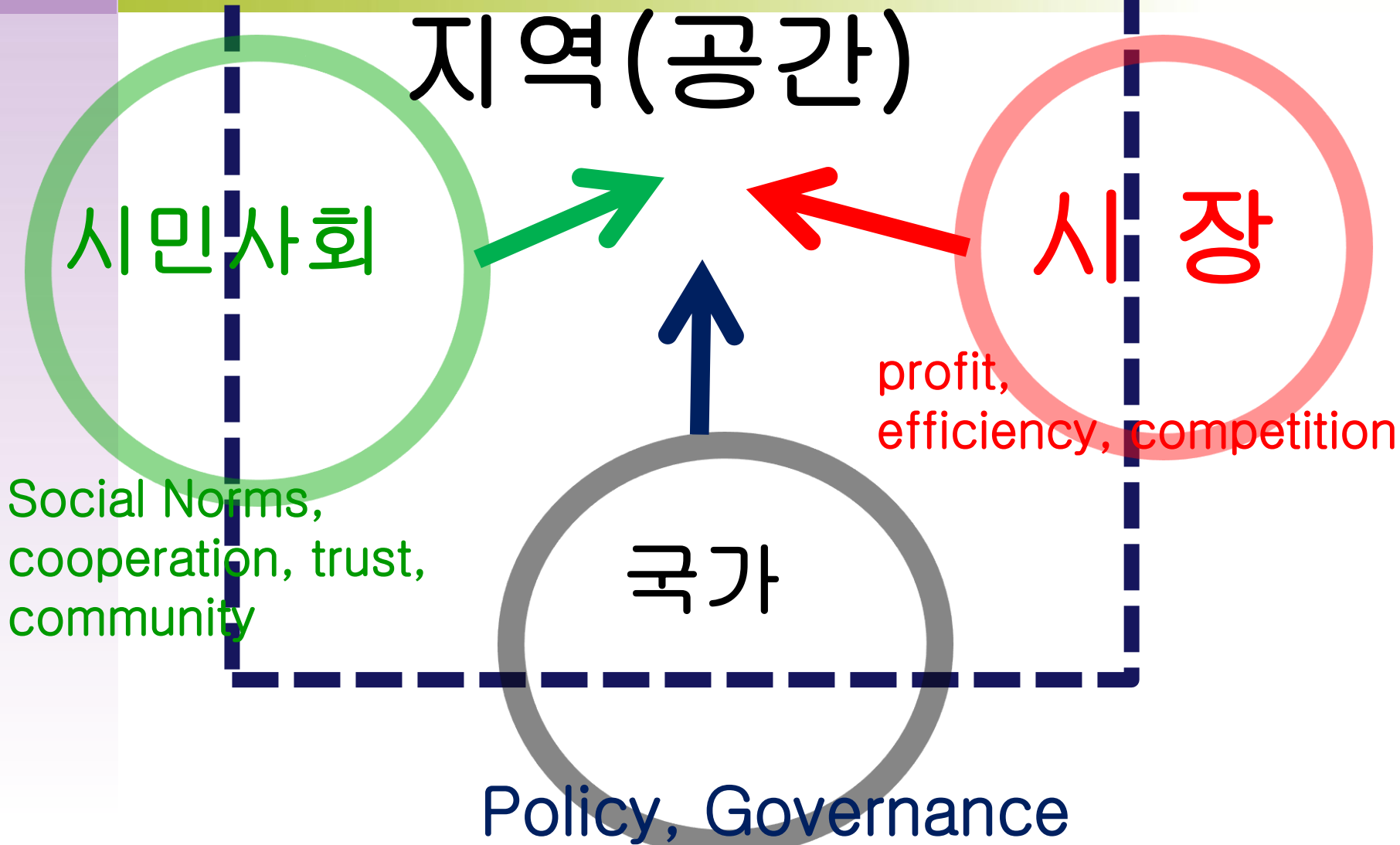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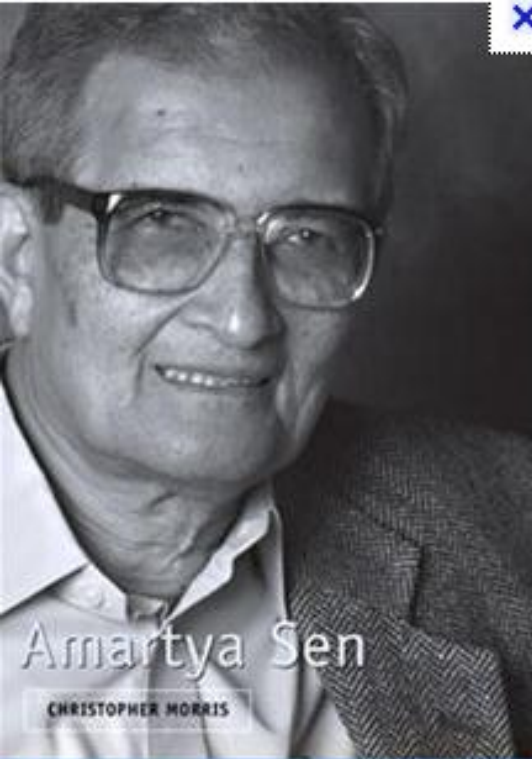
-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 공동체, 지역** 그리고 **노동**을 상호의존적인 개념으로 이해.
- 오늘날 시장주의가 전면화된 사회에서 지역과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경향에 대해서 **공화주의** 철학자들은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냄 (Sandel M., 2012).
-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안정은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며 이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경제모델은 지역경제 (local economy) 발전의 원리와 유형을 고려할 필요.**

- 시장사회=시장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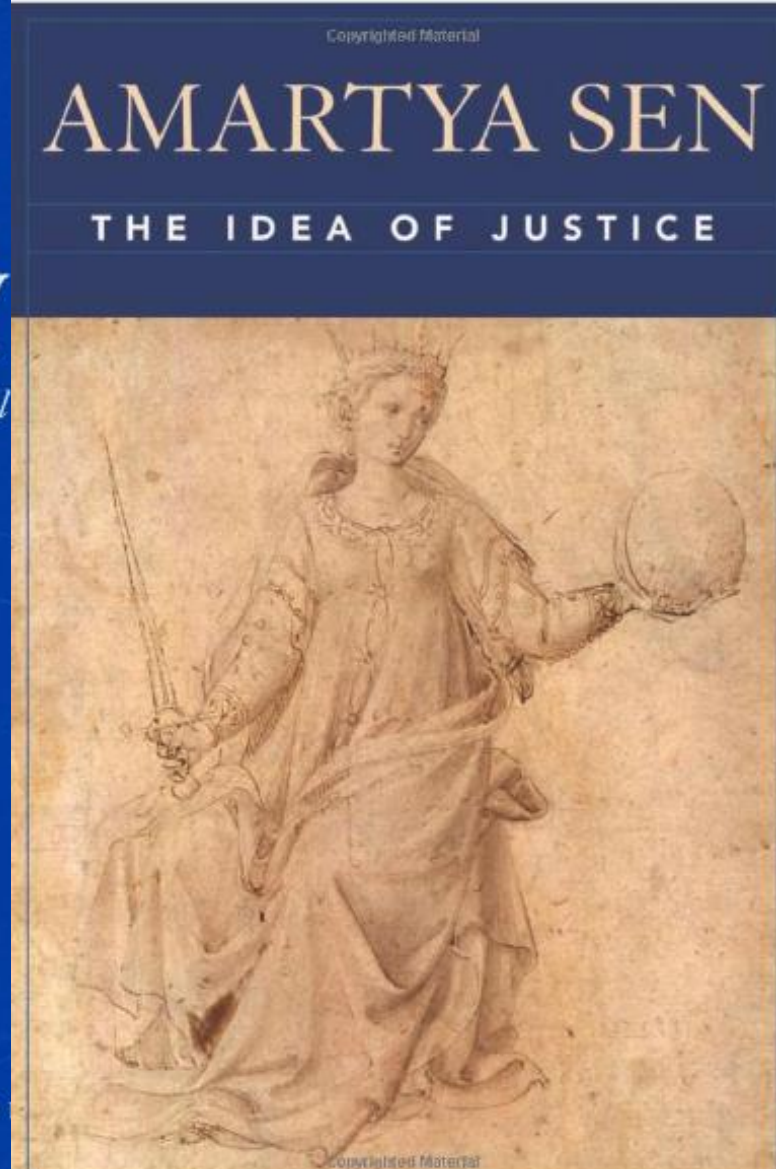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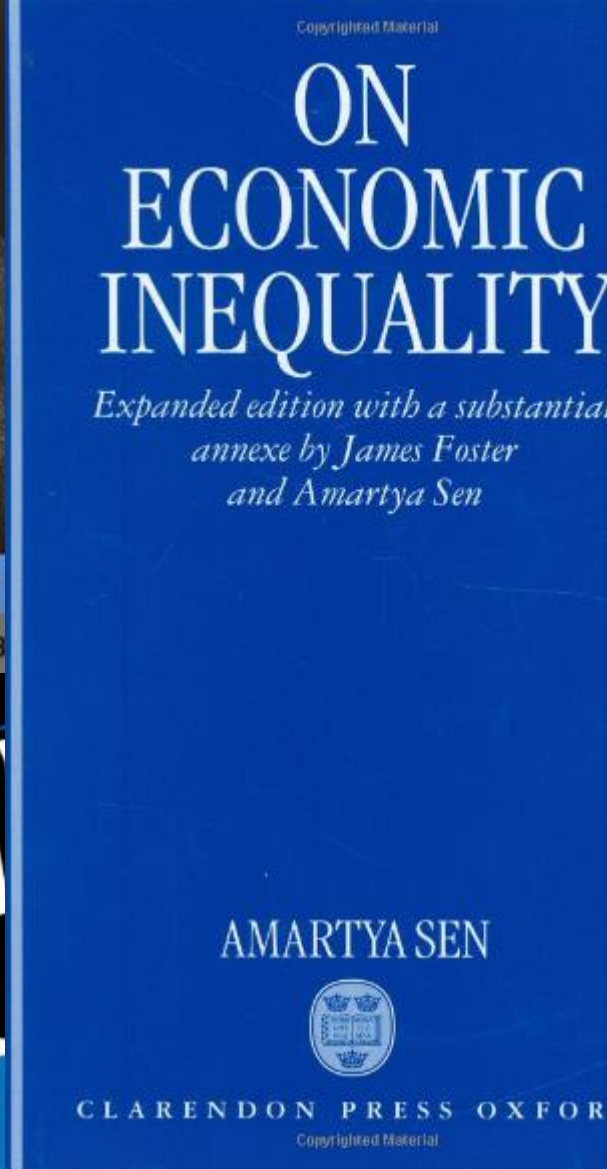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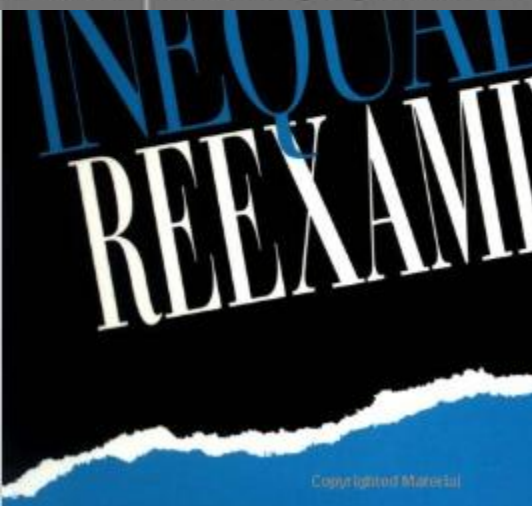




인도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야 센 (A. Sen)



CONTEMPORARY PHILOSOPHY IN FOCUS
CAMBRIDGE www.cambridge.org/9780521852913





- 최근 저작 (Sen, 2009)에서 Sen은 이상적이고 이념형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 (Sen, A., 2009)
- 사회불평등과 위험의 편중된 배분구조가 지역이라는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에 집약되어 부국과 빈국, 도시와 농촌, 도시내 중심과 주변 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
- 그 **해법**으로서 서로 다른 역량과 자원을 지닌 개인, 집단, 사회간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적 숙고 (democratic deliberation)와 공적 추론 (public reason)**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이자 원리**



•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는 한국사회

- 자영업자 720만명,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800만명으로 **민생 경제지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한국사회
- :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010년 기준 OECD 평균의 2배 수준(28.8%)으로 포화 상태에 달해 '창업자의 무덤(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폐업)
- :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 근속**' 의 나라(김유선, 2012).
- : 2010년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높은 수준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A smart, timely, and provocative book that offers us compelling new ways of looking at globalization."
—Joseph Stiglitz, Nobel Laureate in Economics, 2007

BAD SAMARITANS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HA-JOON CHANG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Ha-Joon Chang



NEW URBAN POLICIES IN THE LOW GROWTH ERA
A Better City, Happier Citizens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부동산정책연구소 기획 | 조영태, 조수현, 조영수 저

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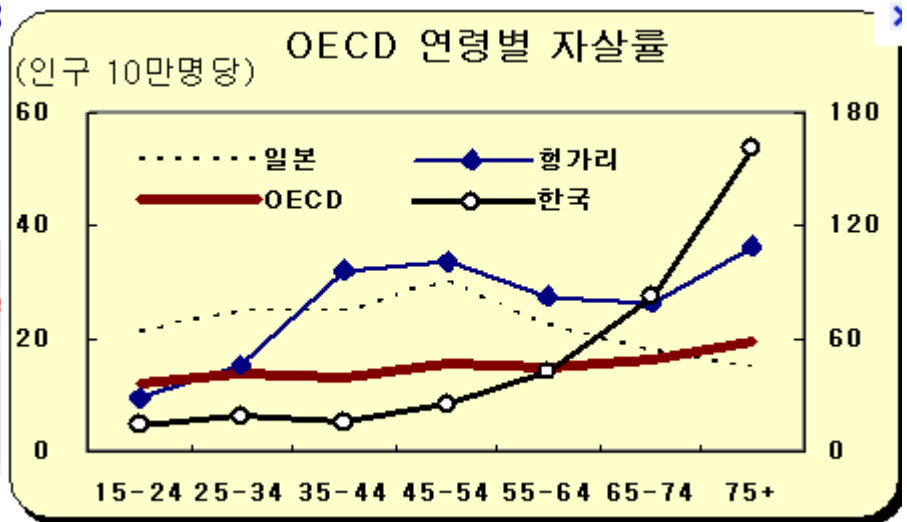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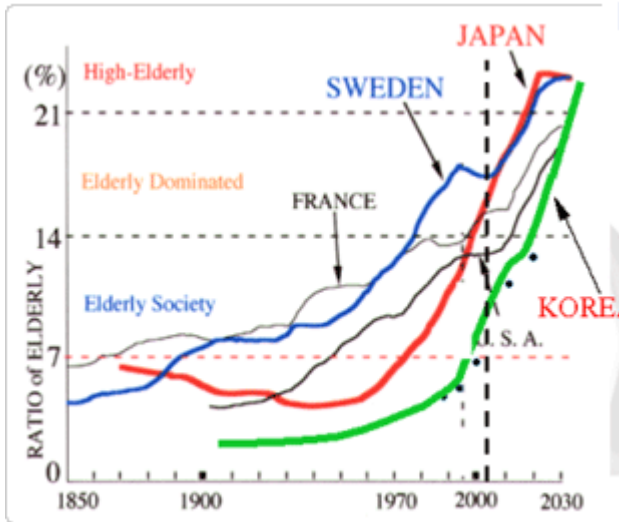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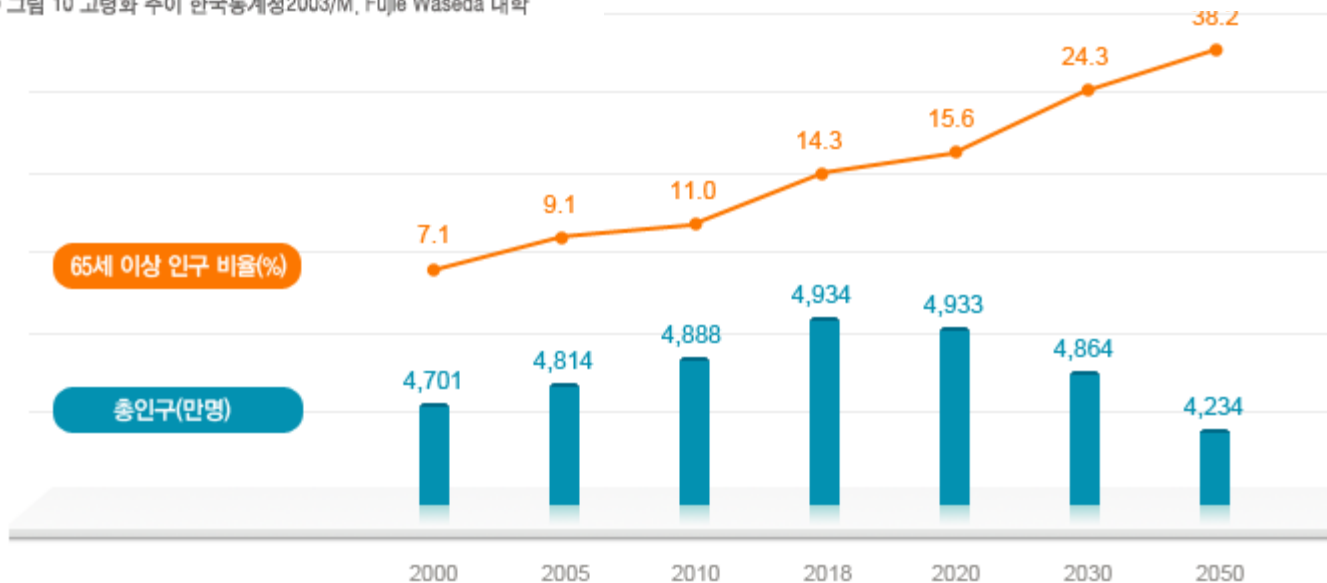
인터뷰 지승호

Copyright © 2017 by Hanul Publish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is published by Hanul Publishing Co., Ltd. under license from the author.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ISBN 978-89-627-1111-1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세계 1위의 자살률과 심각한 수준의 노인 자살



⑩ 그림 10 고령화 추이 한국통계청2003/M, Fujie Waseda 대학



고령화는 시혜적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현대 사회의 가장 본질적 현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

서울경제비전 2020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지 정보

- 설문지 제목 : 서울경제비전 2020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1-04-28 16:10:00.0 ~ 2011-05-06 12:59:59.0
- 총료 응답자수 : 미지정 · 최소 응답률 : 50 % · 등록된 문항수 : 13 문항
- 설문 대상 : 비회원 가능
- 응답일자 : 822 명

3. 세계 변화트렌드(에너지 고갈 · 기후변화, 삶의 질 증진, 저출산 · 고령화, 산업 · 기술의 융 · 복합)에 대비하여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래 신산업 육성	175명 (22%)
(2) 지역간 불균형 극복	94명 (12%)
(3) 문화 · 공원 등 여가시설 확충	44명 (5%)
(4) 고령인구 일자리 제공 및 복지지원 출산장려대책 강화	454명 (57%)
(5) 기타	35명 (4%)
계	802명 (100%)

5. 2020년 서울시민 생활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복수선택)

(1) 평균수명 연장/고령화	554명 (40%)
(2) 로봇 사용 일반화	71명 (5%)
(3) 서울의 관광도시화	128명 (9%)
(4) 태안관 등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 사용	264명 (19%)
(5) 1인 가정 대폭적인 증가	338명 (25%)
(6) 기타	18명 (1%)
계	1373명 (100%)

6. 서울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 선택에 주시요) (복수선택)

(1) 경영컨설팅산업	110명 (5%)
(2) 금융산업	217명 (10%)
(3) 관광산업	320명 (15%)
(4) IT융합산업	374명 (18%)
(5) 의료산업	256명 (12%)
(6) 녹색산업	342명 (16%)
(7) 콘텐츠산업	256명 (12%)
(8) 디자인·패션산업	184명 (9%)
(9) 인쇄산업	5명 (0%)
(10) 의류봉제산업	8명 (0%)
(11) 귀금속산업	5명 (0%)
(12) 기계산업	37명 (2%)
(13) 기타	16명 (1%)
계	2130명 (100%)

서울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사회의 서울시민들의 생활 상의 변화나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은 고령화, 문화,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에 닿아있음



••• 풀타임 고용 시대의 종언

- 현대사회는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 '고용의 종말 (end of employment)'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그동안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풀타임 (full-time) 고용사회는 이제 하나의 신기루** (Rifkin, J. 1995)
- 산업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고용불안정과 저고용**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완전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적 세상에서 만들어진 처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저고용에 따른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전면화 (Beck, U., 1997; Beck, U. 2005)

노동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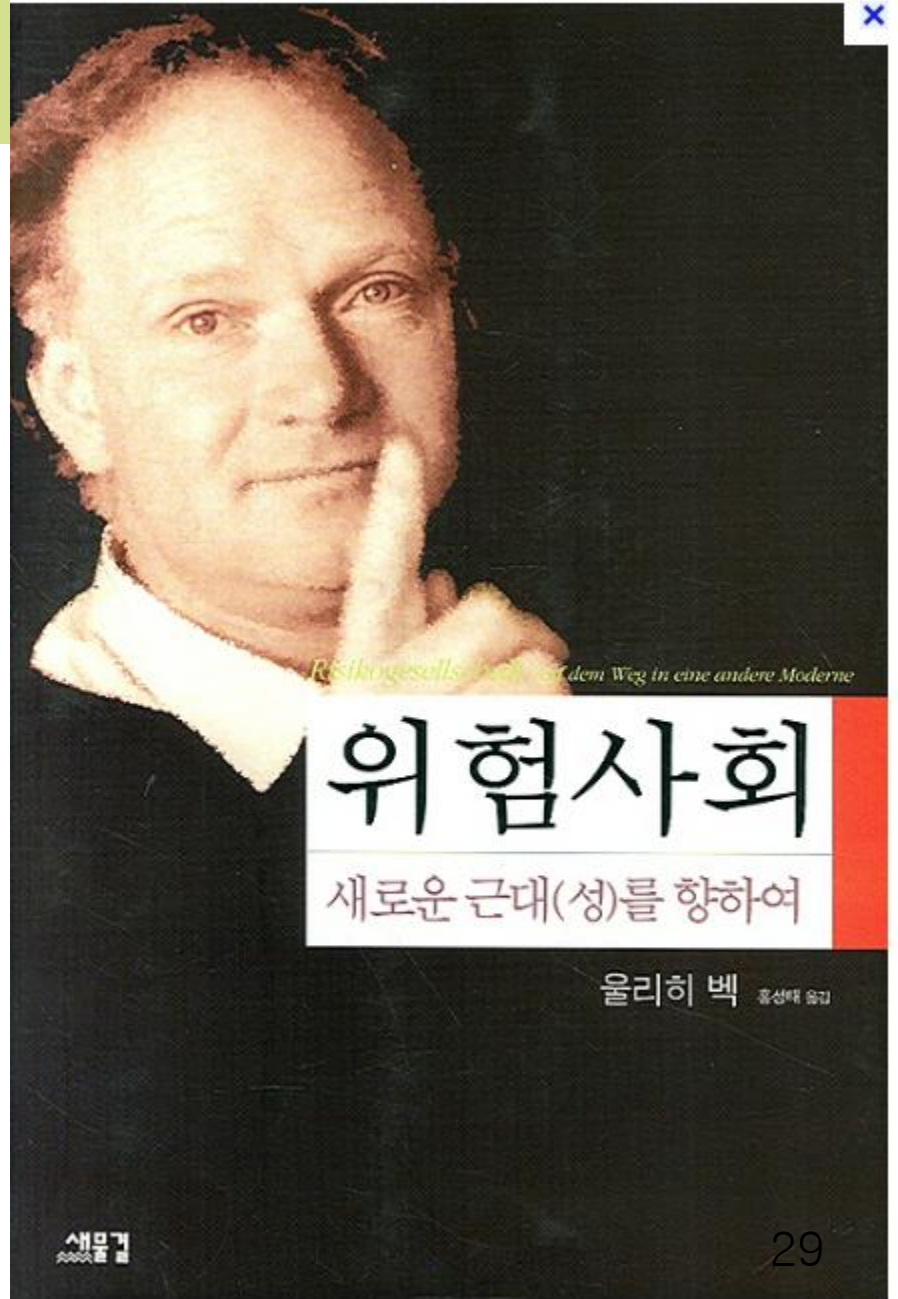
이영호 옮김

노동자 없는 세계로 열린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그 길이 우리를 기술 천국의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인지,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동의 종말은 분명하여, 시험 산고를 내릴 수도,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THE END OF WORK'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다

민음사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울리히 벡 홍상애 옮김

새물결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2. 대안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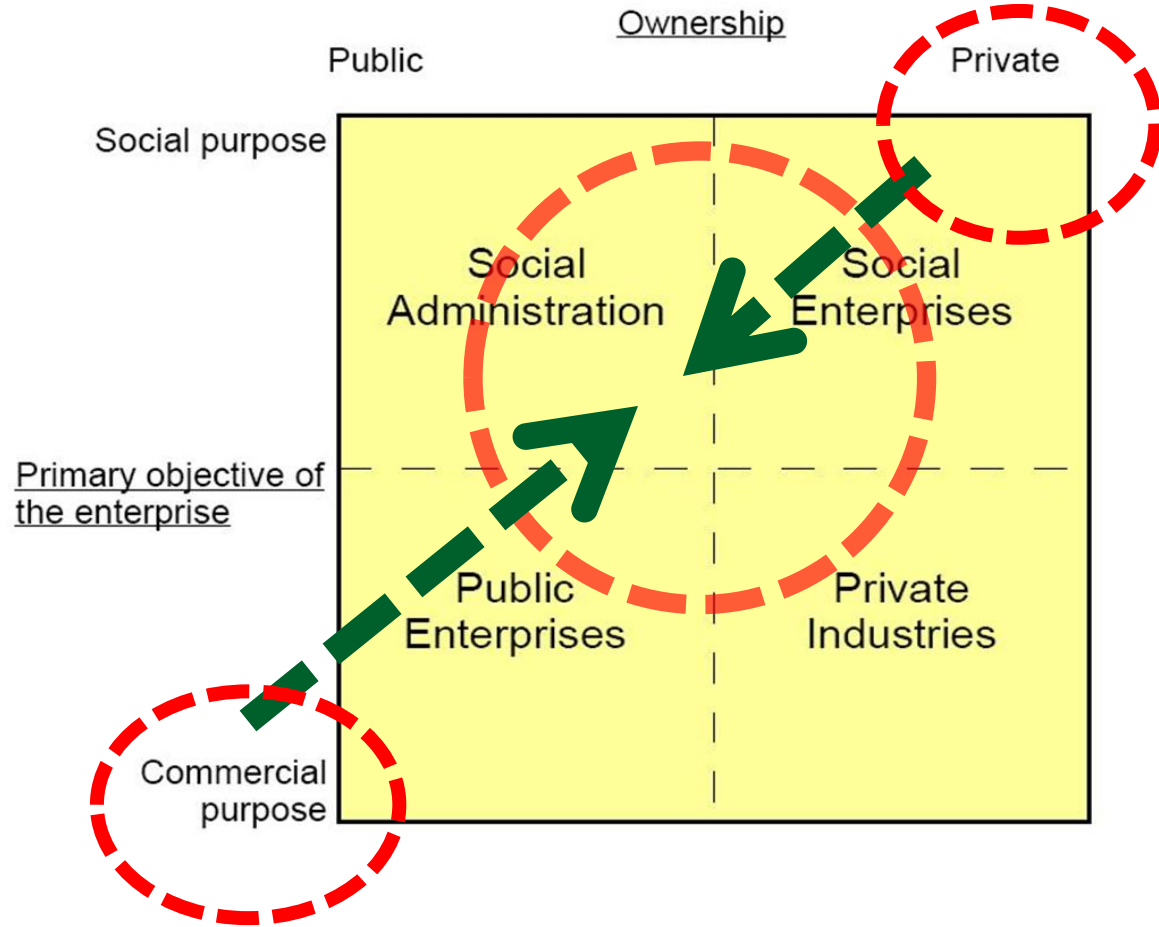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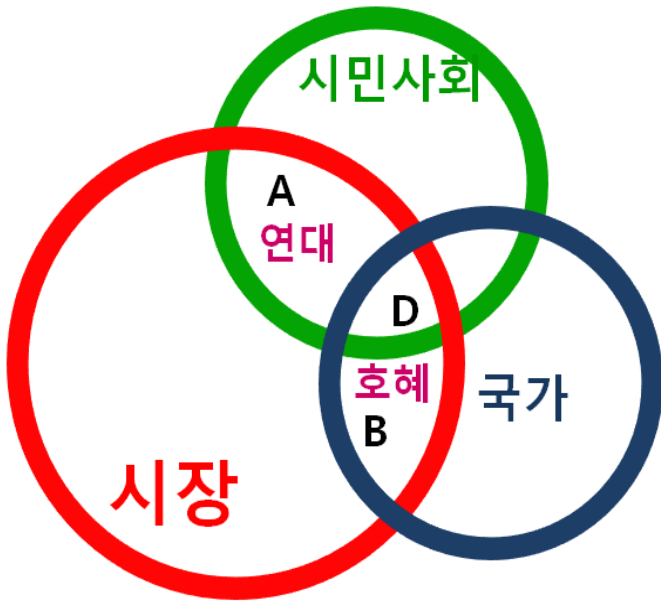
- 기존 사회시스템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무기력함을 보일 때 활발하게 나타남.
- **경제와 사회의 이분법 (dichotomy)/분리**를 거부하고 그 관계를 재규정 / 재정식화
- 2000년대 초, 위기가 일상화되고 다면화되면서 고용문제외 노사관계, 사회불평등, 환경문제, 사회적 배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회의 등이 제기되면서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

3.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

-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어느쪽도 마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는 **기존 양자택일적 선택 - 국가인가 혹은 시장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적 해법**으로 주목
- 그런 점에서 그 현실에서의 규모보다는 제도측면에서의 영향(새로운 대안적 제도에 대한상상력)이 중요!
- 그 핵심은 **참여적 특성들: 거버넌스, 파트너십, 공동생산(co-production), 협력적 건설(co-construction), 네트워크**
:이를 통해 사회가 경제와 정치권력과 분리되지 않고 가깝게 됨. (Bouchard, Marie J. 2013, 276).



사회적 경제 영역 (A,B,D)





사회과학 (경제학)의 인간관, 방법론과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경제		사회적 경제
	시장	기업	
행위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감성적 존재 (이타성, 상호성...)
인간관	이기적 인간		상호적 인간 -> 협력적 인간-> 이타적 인간
개인 vs 사회	원자화된 개인, 과소사회화된 개인		사회적 개인
규범 (social norms)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전체선(total good)		공동체주의/ 공동선(common good)
이론자원	주류경제학	신제도경제학	행동경제학, 경제사회학
조직	교환 (exchange)	위계 (hierarchy)	혼합형(hybrid) 협동조합(cooperative)/ 거버넌스(governance)/ 네트워크(network)
의사결정/권력	1원 1표 다수결/ 민주주의의 위기		1인 1표 숙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지역/공간	'입지'로서의 공간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분절적으로 인식		복합/다면적/총체적 공간
문제 or 대안	문제 최수의 딜레마/공유지의 비극/시장실패/불평등심화/ 배제와 고갈/		대안 /빈도의존성,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취약 /지원필요
해법	집합행동의 딜레마 -> 게임규칙의 변화 필요/ 규범, 신뢰, 가치 요인		사회적 경제의 순환 시스템 / 사회자본 형성/지역 거버넌스



• 대안적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

- 고용문제에 관심이 큰 ILO는 경제적 활력과 함께 지역발전과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생태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모델'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표방 (ILO, 2011).
-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표명. 이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문제해결 능력, 공동체 (community)의 복원과 지역재생, 그리고 공공성의 증진과 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

<그림 1> 경제활동 전체와 고용노동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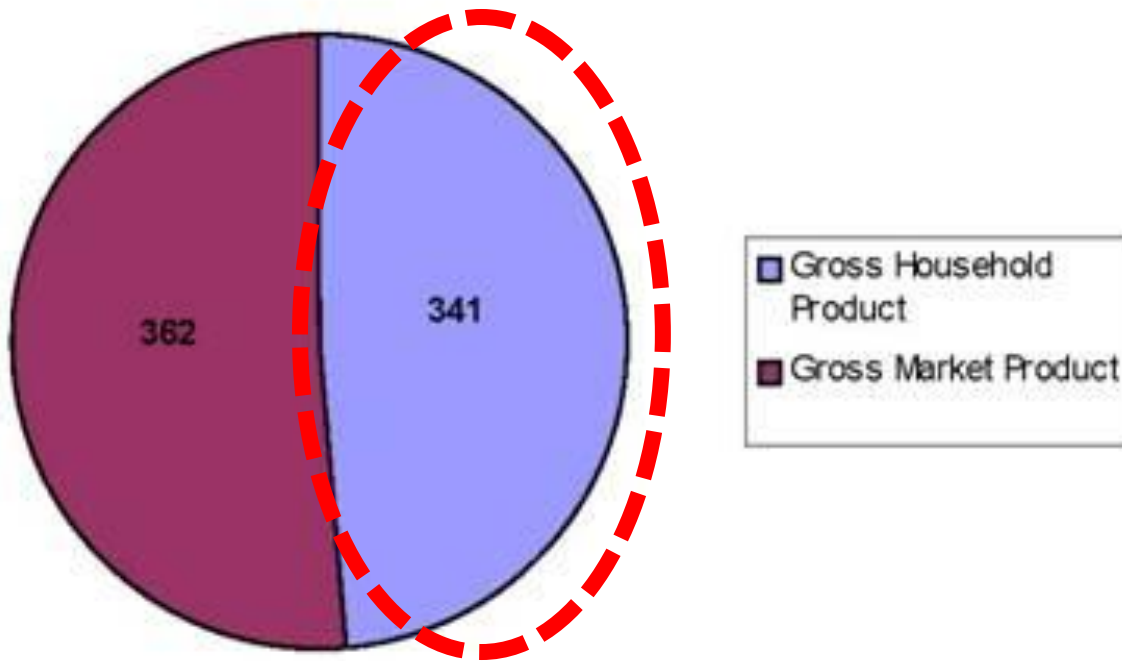
출처: Community Economies Collective, 2001, Cameron, J.(2008),



고용노동은
전체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활동 중,
빙산의 일각

<그림 2> GDP 대 비화폐적 경제활동 가치 비교 (1992년, 호주), 출처: Cameron, J.(2008), <표 2>

Gross Economic Product, in \$ Billion



서구(호주,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은 고용에 기초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는 GDP 규모에 거의 육박**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4. 아직은 실험실적 대안 (a laboratory)

-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대안**이라기보다 **새로운 실험의 장**. 사회적 경제의 고유한 한계는 사회적 경제가 뿌리깊은 현존 시스템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이 실험이 광범하게 된다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공공영역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가능하게 될 것 (Bouchard, Marie J. 2013, 274-275)
- 사회적 경제는 생산, 소비, 분배, 지역경제(고용)에 관한 대안적 실천을 실험하는 **실험실**. 실험의 결과는 사회적 경제가 단지 시장과 국가 사이의 잔여공간을 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것!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고용현황 (2002-2003) 출처: 장종익(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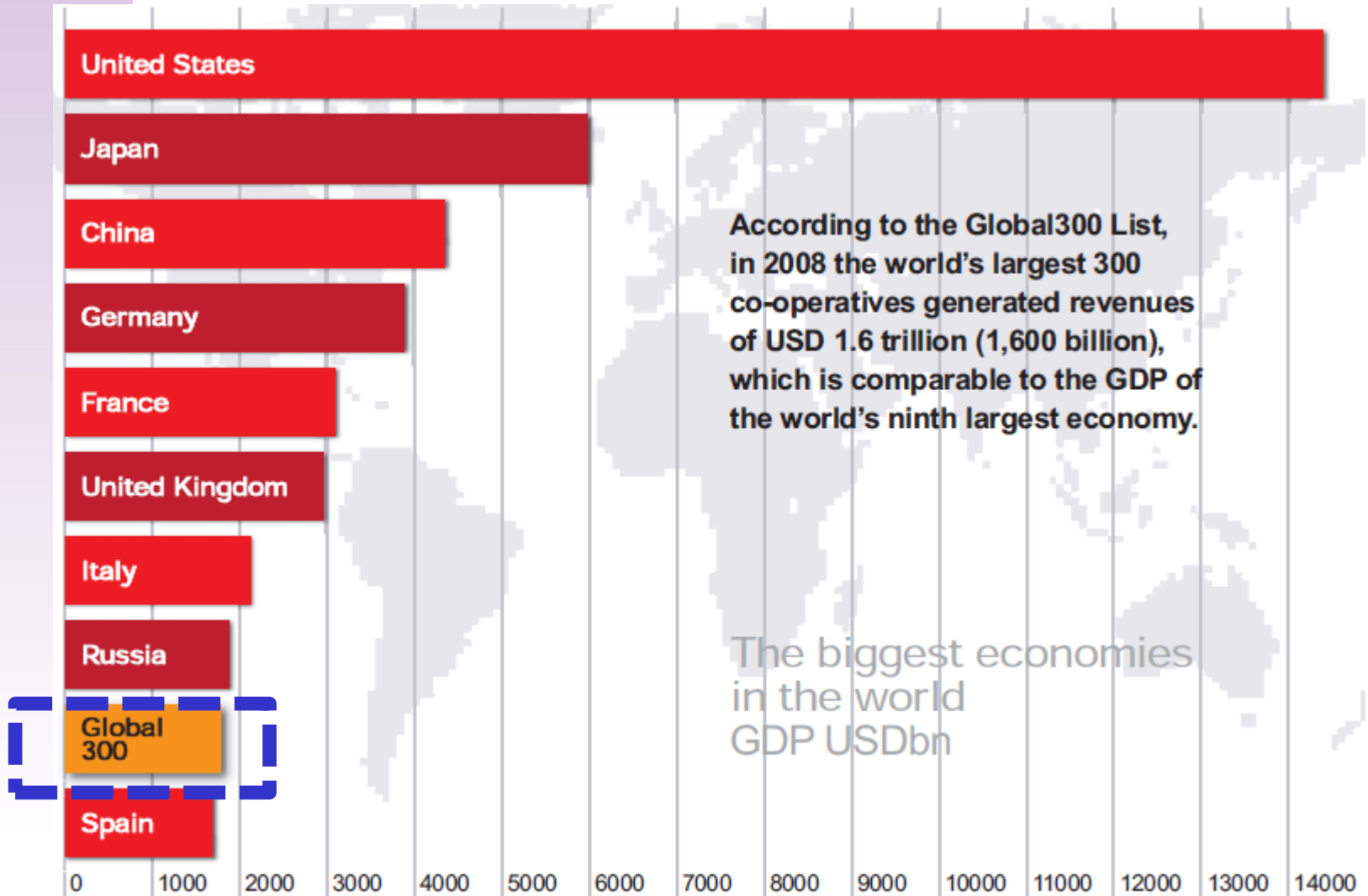
국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재단	합계	총 고용 대비 비중
벨기에	17,047	12,864	249,700	279,611	6.9%
프랑스	439,720	110,100	1,435,300	1,985,150	8.3
아일랜드	35,992	650	118,664	155,306	9.0
이탈리아	837,024	(주1)	499,389	1,336,413	6.2
포르투갈	51,000	(주1)	159,950	210,950	4.4
스페인	488,606	3,548	380,060	872,214	5.4
스웨덴	99,500	11,000	95,197	205,697	4.8
오스트리아	62,145	8,000	190,000	260,145	6.9
덴마크	39,107	1,000	120,657	160,764	6.0
핀란드	95,000	5,405	74,992	175,397	7.5
독일	466,900	150,000	1,414,937	2,031,837	5.7
그리스	12,345	489	57,000	69,834	1.8
룩셈부르크	748	n/a	6,500	7,248	3.9

우리나라
2010년 말
기준 상호
출자제한
집단 55개
그룹 1,264
개사 고용
비중 8.7%
와 비슷한
규모의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
고용 비중





Global300 Report 2010,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성장,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

-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영역 증가
- **지역에 기반**하고 돌봄 노동,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 (sustainable livelihood)**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화 경향** 혹은 **전통적인 조직과 경계의 해체경향**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
- 정의와 범주가 **진화과정**에 있는 개념 (an **evolving, not yet universally defined**, concept)(ILO,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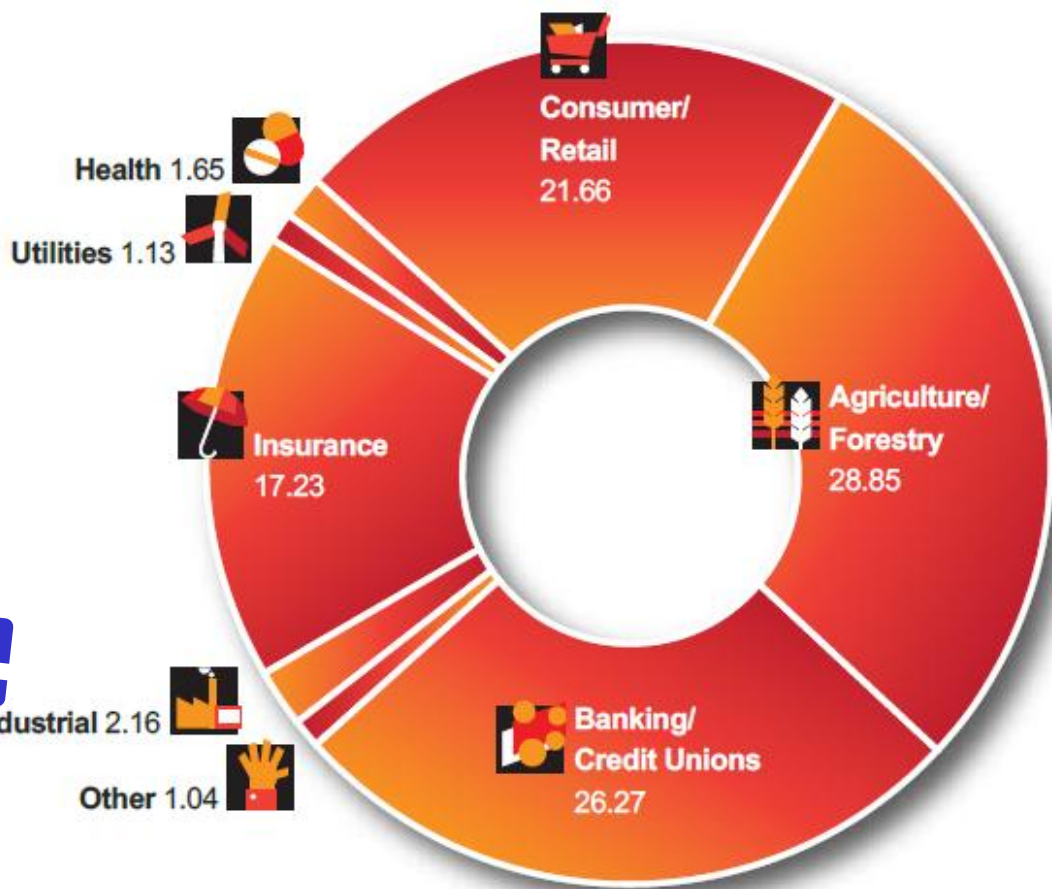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실



• • 협동조합의 GDP 비중의 착시 (%)

France	28%
United States	16%
Germany	14%
Japan	8%
Netherlands	7%
United Kingdom	4%
Switzerland	3.5%
Italy	2.5%
Finland	2.5%
Korea	2%
Canada	1.75%



Global300 revenue by sector



서울·동북4구(강북, 노원, 도봉, 성북)의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동북 4구 사회적경제에 고용된 수는 근무기준 총취업자수의 **약 0.3%** 수준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설협동조합, 생협 등 **247개**의 조직에 고용된 인원은 **약 1,200-1,500명** 수준으로 추정 (서울시 비중과 비슷)
- 신협, 새마을금고는 미약
 - 9개 신협, 25개 새마을금고, 3개 농협, 서울지역 175개 신협의 **5.1%**, 서울지역 269개 새마을금고의 **9.3%**, 주로 성북구에 편중
- 생협의 활동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
 - 4개의 서로 다른 계통의 생협이 개별적으로 활동, **총 조합원수는 약 1만 5천여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3%** 수준.



동북4구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

- 동북4구 23개 인증사회적 기업은 서울시 192개 중 **12%**를 차지
- 장애인, 노인 등의 노동통합형,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락 공급 및 돌봄서비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동
-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임팩트**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 **자활기업 및 자활공동체**의 수가 105개로 큰 비중을 차지
- 5대 표준화사업에 집중화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지원시스템이 부재하여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고용의 질이 낮고 시장경쟁력을 갖지 못한 영세 창업에 머무르고 있음.



● 부족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 실질적 비중 (0.25%) 과 영향력,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 등 **질적, 양적 측면에서 미약**
-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향도 보임** (2007년 이후 SK 80여개, 현대자동차 7개, 포스코에서 4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한겨레, 2012년 2월 7일자)
: 사회적 기업 현장에 있는 모델을 발굴해 기업이 자금만 지원하는 외국과 다른 경향



참여의 부족

국 가	공공부문을 통한	민간부문	
	지원	기증(donation)	서비스/재화 수입
프랑스	57.8	7.5	34.7
독 일	64.3	3.4	34.6
일 본	34.4	3.3	62.3
영 국	46.7	8.8	44.6
미 국	30.5	12.9	56.6

※ Perotin(2001) p.335, 윤성용 외(2006)에서 재인용

구분	미국	한국
개인기부 총액(비중)*	2274.1억달러(76%)	54.3억달러(30%)
GDP대비 기부액 비율	1.6%	0.7%
가구의 기부참여율	86%	52.3%
가계소득 중 기부액 비중	3.1%	0.35%
종교단체에 기부 비중	35%	86%
유산기부의 비율	7.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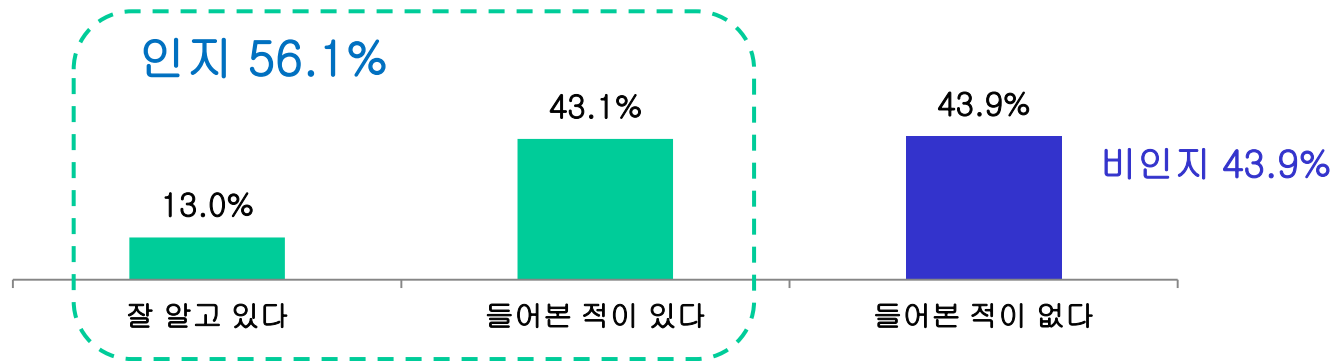
주: 미국은 개인기부(76%)가 법인기부(24%)보다 비중이 높으며, 한국은 개인기부가 30%로서 법인기부 70%에 비해 저조함을 의미

민간의 자발적 참여

공공부문의 지원

<사회적 적경제 인지 여부> 문항 응답결과 (동북4구 주민 1,600명 의견조사(2013))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목적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총칭하는 '사회적경제' 에 대해 알고 있나?



POINT

구분(%)	인지	비인지
20대	47.3	52.7
30대	58.5	41.5
40대	70.6	29.4
50대	62.2	37.8
60세 이상	40.7	59.3



• 미국의 시민사회 /NPO의 경제적 비중

- 미국에서 최근 25년간 비영리부문은 빠르게 성장해서 2배로 증가.
- Nonprofit Employment Data Project (Johns Hopkins University)에 따르면 이 부문의 **직업**은 전체 미국의 직업의 **10.5 퍼센트**를 차지, 2002-2004년 사이에 비영리부문의 일자리는 50개주 중 46개주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 2008년 현재 140만 과세면제혜택을 받는 비영리조직이 존재. 비영리조직의 수입은 연간 140억 달러에 이르며 자산 보유고는 3 천억달러로서 **GDP의 5.2퍼센트**. 고용규모는 940만명으로 전체 임금 및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 퍼센트**.

〈출처〉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 the Office of Advocacy, 2008.



• 미국의 시민사회 /NPO의 경제적 비중

- 미국인 여덟명 중 한명(흑인은 4명 중 1명)이 빈곤상태, 성인의 1/4이 고등학교를 중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지만 미국의 세계 37위의 의료시스템, 높은 범죄율로 108명 중의 1명이 수감 중.
- 1조 달러(1,100조원)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산을 쓰는 정부부문은 사회기업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민간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사회문제 해법 모색이 절실한 상황 (* 참고: 세계 9위 수준인 우리나라 한 해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친 액수(2012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조 675억 달러)
-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정부들은 각각 시민주도, 결과지향, 시장기반 접근(citizen-centered, results-oriented, market-based approaches)을 강화

한국과 서구사회간 여건의 차이

- 선진국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역량의 발전 토대 위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취약
- 150년 이상 축적된 협동의 노하우(협동조합운동)과 100년 이상 박애주의적 실천(비영리조직운동)을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발전
- 한국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협동조합운동이 억압당하고 독재정권에 의해서 관제화된 역사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이 동시에 진행
- 협동조합의 확산을 통한 협동의 노하우와 민관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한 지원역량 강화가 필요

III. 지역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 서울 동북4구의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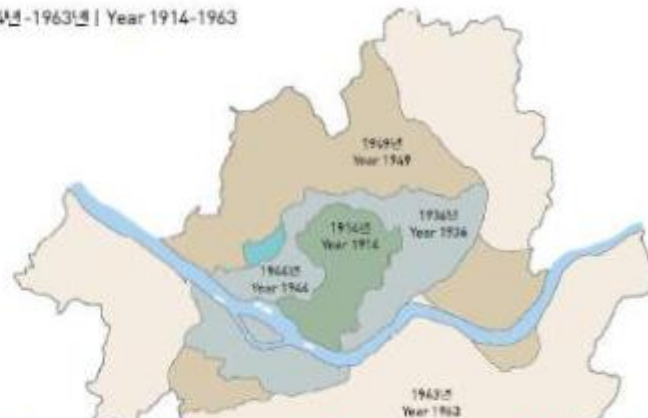
1. 서울 동북4구 개요

행정구역 변천 1394-1995
Change in Administrative District, 1394-1995

1394년-1913년 | Year 1394 - 1913



1914년-1963년 | Year 1914-1963



성북구에서 점차 나뉘어진 '원조 강북',
동북 4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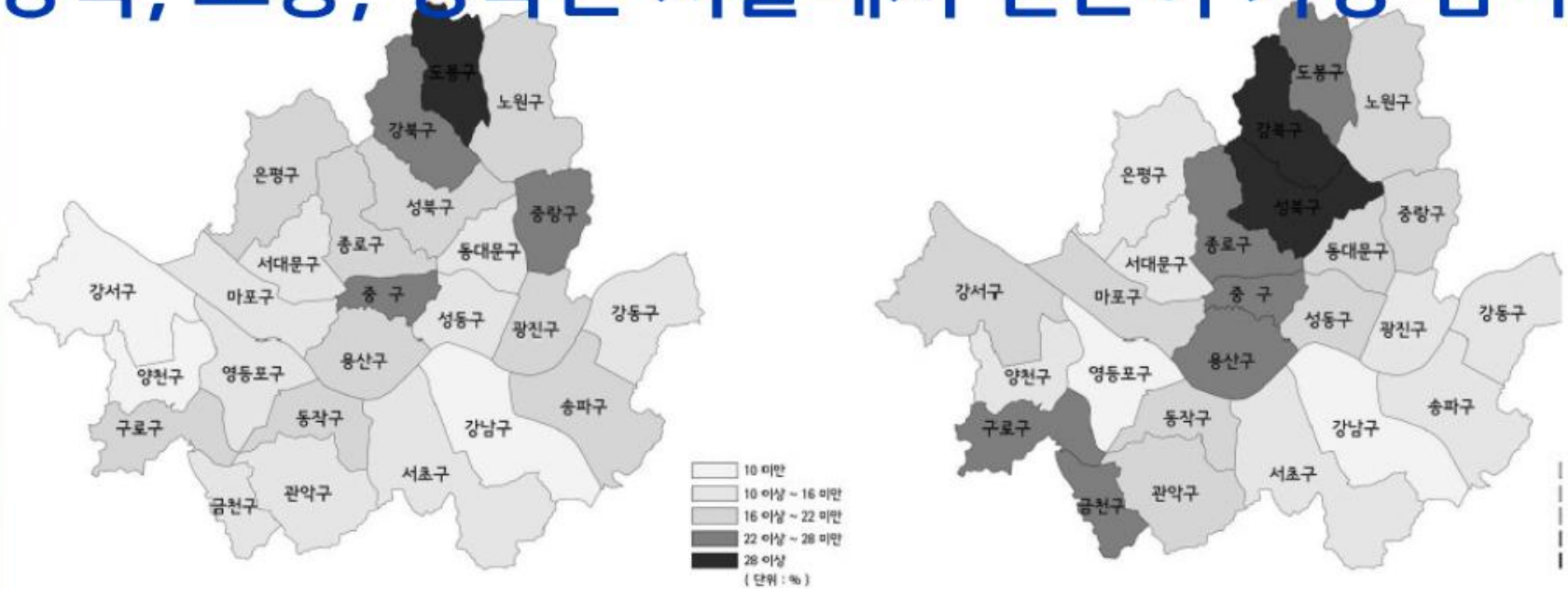
1995년 | Year 1995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7

[그림 1] 서울시 지역별 상대적 빈곤율

강북, 도봉, 성북은 서울에서 빈곤이 가장 심각





인구 변화 1980-2005 Population Change, 1980-2005

- 감소 Decrease
- 20 이하 Below
 - 20~-10
 - 10~0
 - 0~15
 - 15~50
 - 50~100
 - 100 초과 Over (%)
- 증가 Increase

인구수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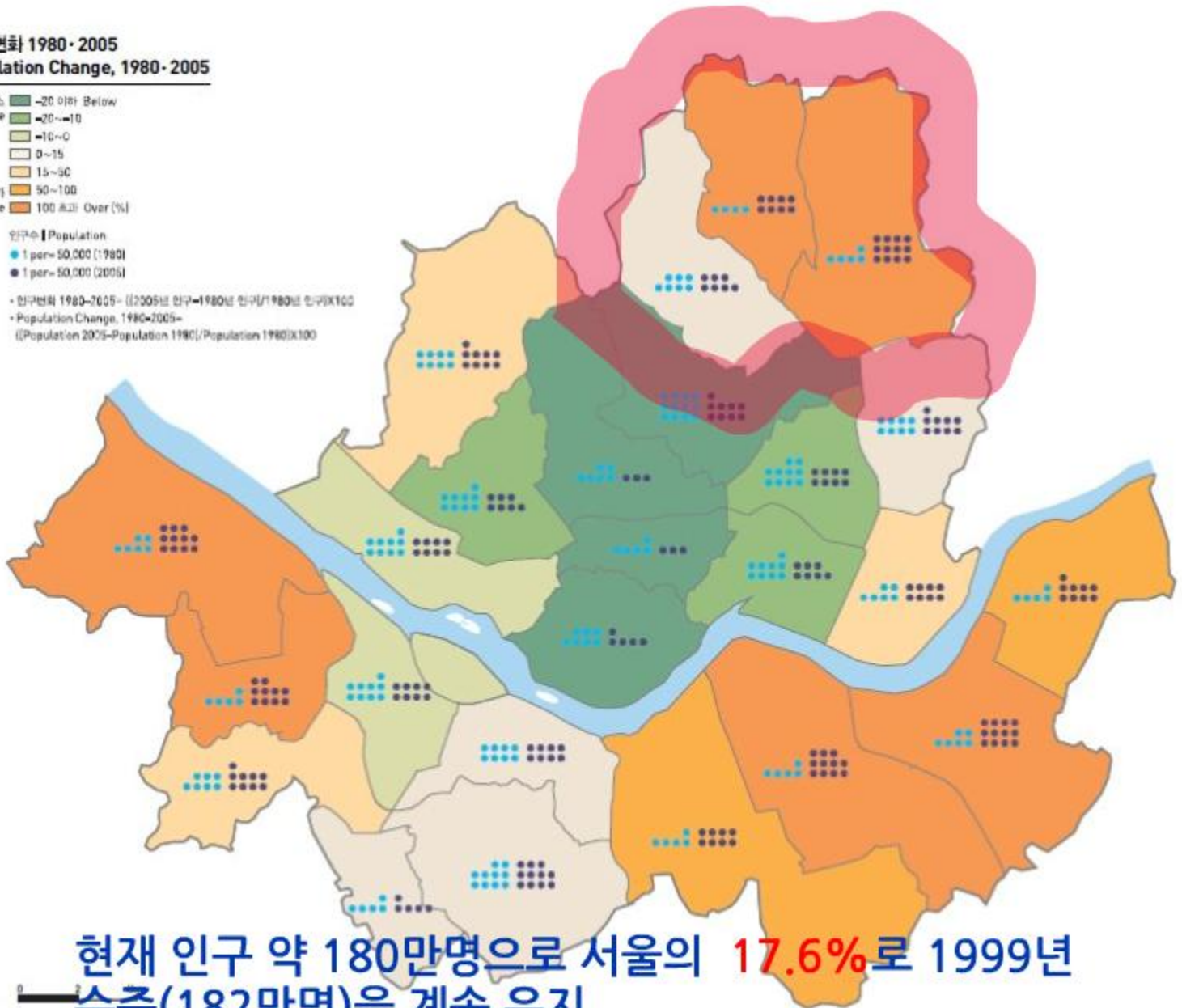
● 1 per=50,000 (1980)

● 1 per=50,000 (2005)

• 인구변화 1980-2005 = ((2005년 인구-1980년 인구)/1980년 인구)X100

• Population Change, 1980-2005 =

((Population 2005-Population 1980)/Population 1980)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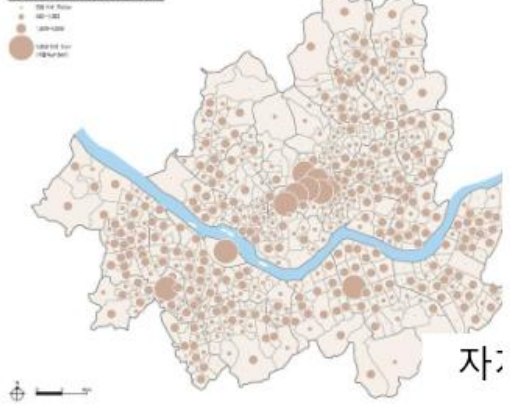


현재 인구 약 180만명으로 서울의 **17.6%**로 1999년
수준(182만명)을 계속 유지
(참고: 도봉 1988년, 노원 1995년 분구)



Source: Agency for Urban Planning, 2012 (4/10), p. 8-11 (8)

서울시 지역별 2005
Establishments of Tertiary Industrie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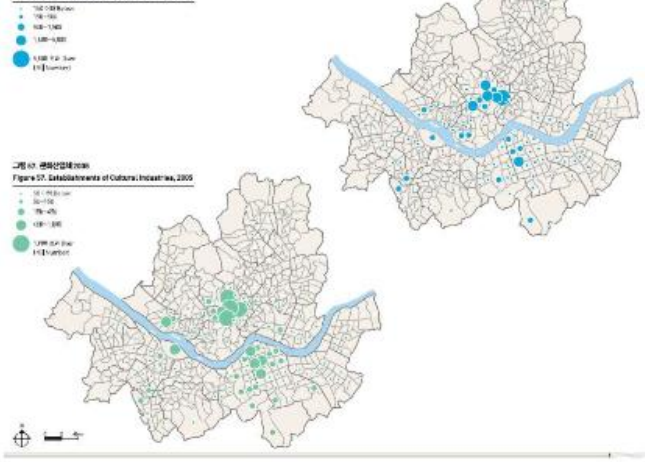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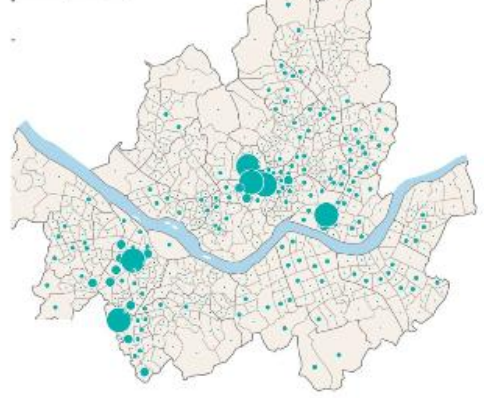
동북권,
은 수준:

창의 및 문화산업 2005
Creative & Cultural Industries, 2005

서울시 지역별 2005
Establishments of Creative Industries, 2005



제조업 2005
Manufacturing Industrie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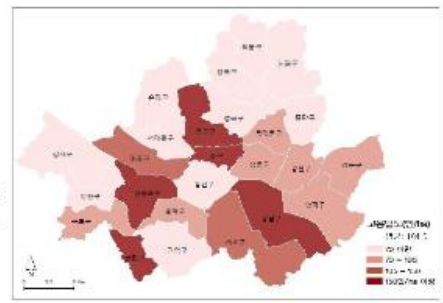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의 밀도는 매우 낮은 대신 소규모 자영 서비스업종이 주류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부족!

반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등 동북권과 서북권은 가장 낮은 고용밀도 형성



[그림 3] '영제적 활력' 영역의 자치구 간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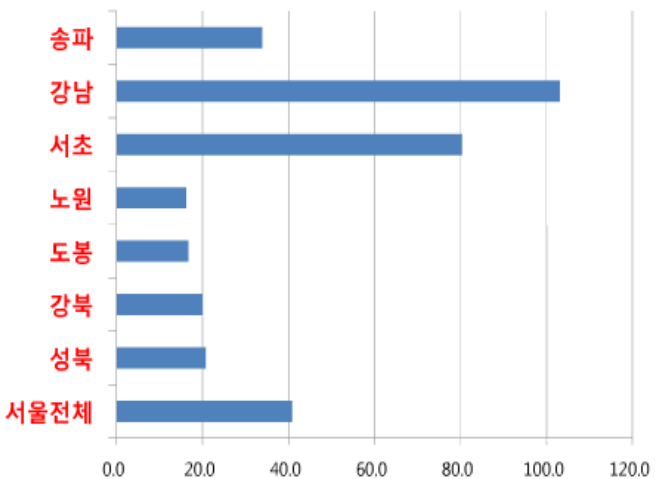
[그림 4] 자치구별 고용밀도(사업체종사자수/100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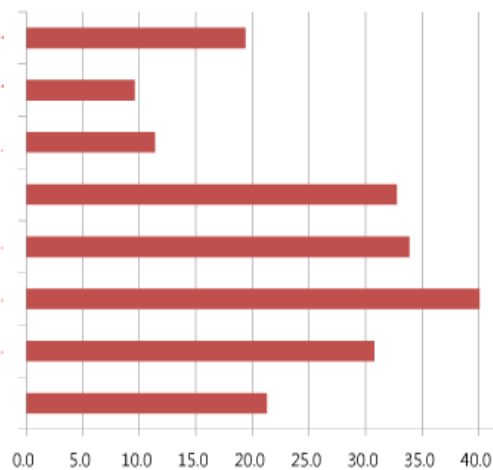
경제적 활력이 낮은 '서울의 변방'

강남3구와는 뚜렷히 대비되는 동북4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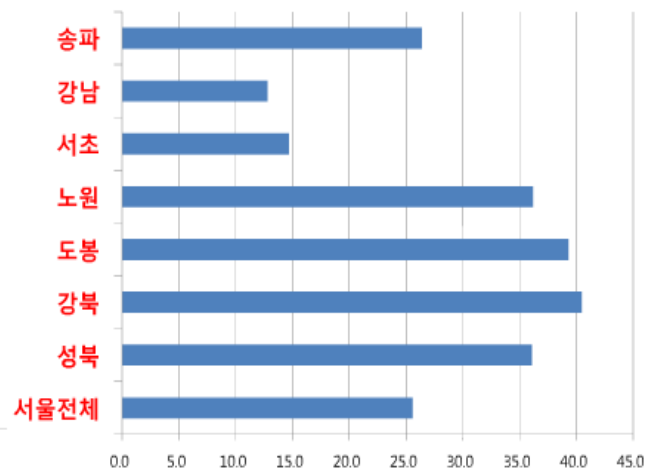
일자리/인구 비중



자영업자비중



5인미만사업체종사자





2. 동북4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

(* 서울동북4구발전연구단 최종보고서(초고)내용을 요약한 것임. 연구책임자: 장종익,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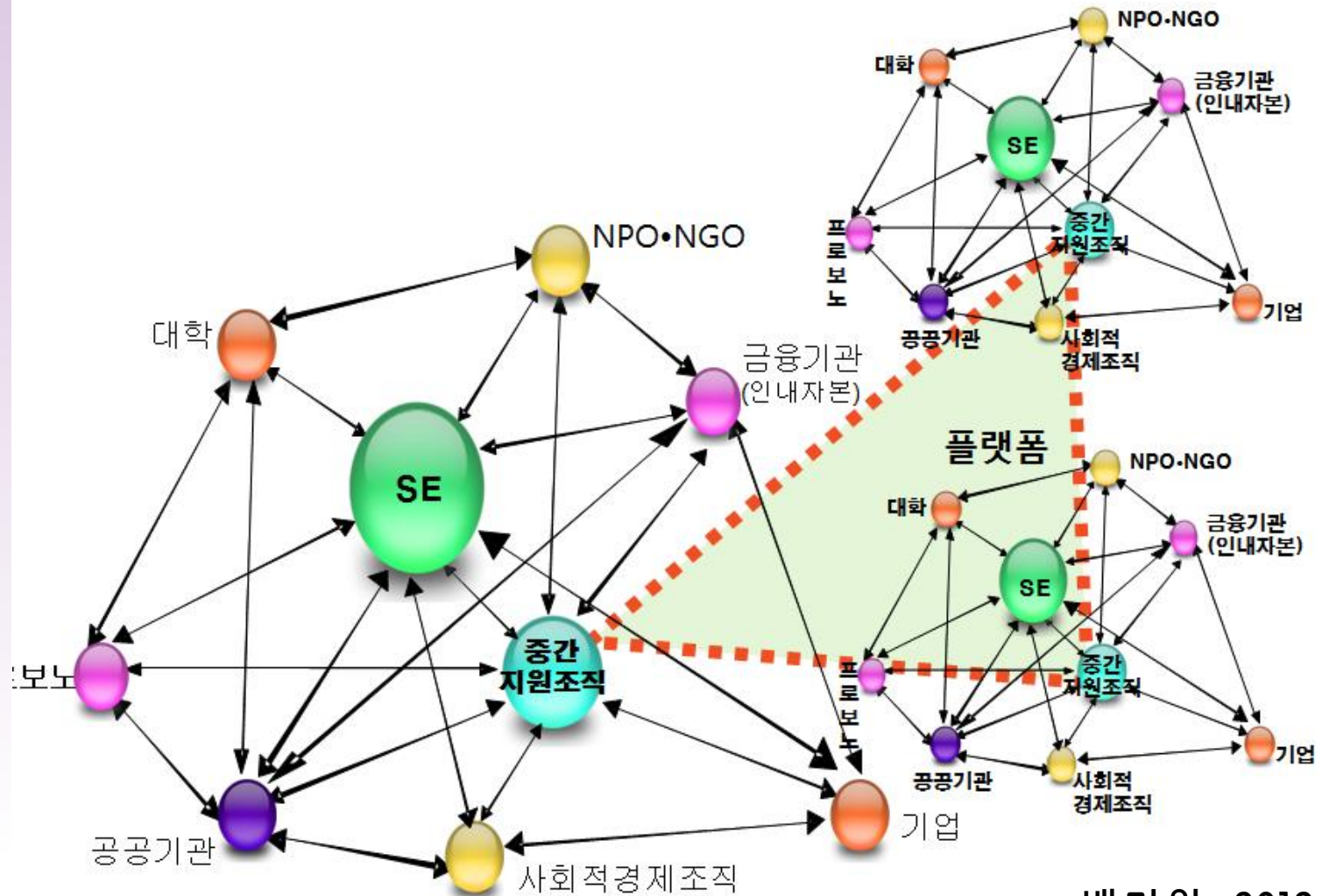


• 동북4구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

-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임팩트가 높지 않음.
- 사회통합형 조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소셜벤처)나 생협 등 협동조합의 발전은 미약한 편
- 전체적으로 규모의 영세성과 고립분산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경향
- 기존 사회적경제조직들 중에서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은 경영의 전문성 제고, 자본조달, 유능한 인재의 확보 등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동북4구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이 높은 동경성북과 노원의 장점을 시강북과 도봉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요구됨.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 필요





동북4구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의 현황

지역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단	지역단위 네트워크	허브센터	SE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역 자활센터	지역소재 전문지원조직
강북	O(2차)	Ing	X	X	X	1개소	한신대 동북4구 사업단
노원	O(2차)	SEs 협의회	X	X	X	3개소	사회투자 지원재단
도봉	O(1차)	SE협회 /SEs네 트워크	O	O	X	1개소	X
성북	O(1차)	SE 협의회 "함성"	O	O	O	1개소	X

주 : SE는 사회적기업, SEs는 사회적 경제 부문



▶ 동북4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문제

주체역량 측면

- 생활세계와의 저밀착성
- 사회적기업가의 경영역량 **취약**
- 개별기업의 **규모 및 전문성의 열위**
-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대한 평가 부족**
- 수요와 공급 관련 자원조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모델 발굴 **미흡**

네트워크 측면

- 자치구 거버넌스의 형식적, 행정중심적 운영
- 민관 협력의 실천 경험의 부재
-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상호 협력 경험의 **취약**

기반 조성 측면

- 주민의 낮은 인식도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미흡**
- 유효 수요 및 시장의 창출 **역량 미흡**
- 다양한 목적의 공간 **부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과제

이 내용은 사회적 경제 운동 주체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며, 노원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의 2012년 제2차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사업계획서(노원구)를 참조함.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

강골포럼(강북지역 풀뿌리활동가 포럼, 2012년 1월 30일) 발제 및 토론 내용 요약

-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1)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위해 **지역사회 분석**이 필요하다. (3) 그 다음에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와 거버넌스가 강화되면서 각론은 있는데 총론이 없는 경우가 많다. (4) 다음으로 전략도 세우고 지역사회 분석도 해놓았지만 **실행계획**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5) 그리고 누구와 할 것인가 하는 **파트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자원배분 문제가 중요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제안을 하자면 한 조직에서 사회적 기업 하나씩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왜냐면 중복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컨소시엄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분업이 안되니까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함께 망하는 것이다.

-올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 때 조합원이 5명이상이 되면 가능하다는 사실만 홍보하지 **협동조합의 7원칙에 대해서는 잘 알리지도 않는다.**

-**지역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급자 중심, 아이템 중심으로 하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이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 문제, 즉 어떻게 지역과 같이 갈 것이냐, 그리고 **존립이유가 무엇이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회적 기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3. 동북 4구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한신대학교 · 지역사회 연합 심포지엄

서울 동북부 4구청장 초청 토론회: 서울 동북부 지역만들기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한신대학교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등
동북부 4개 구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만들기의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시민사회 그리고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지역 만들기의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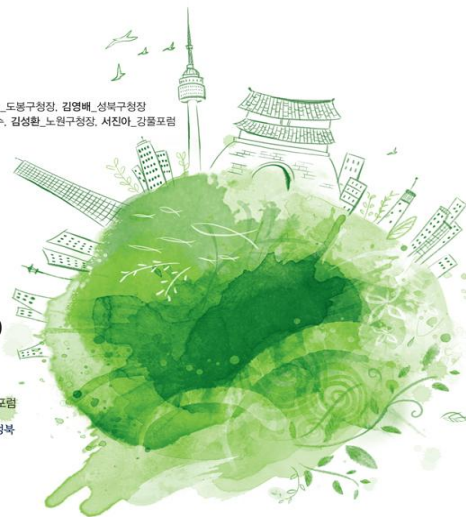
4개 구청장님들께서

● 행사개요

- 일 정 : 2011년 10월 6일(목요일) 15:00 - 18:00
- 장 소 :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장공기념관 201호
- 주 최 :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서울평생교육원
- 후 원 : 강북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성북구청
- 연락처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Tel 02-2125-0186, 0124 / 031-379-0229
E-mail cpqi@hs.ac.kr

서울 동북부 도시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한 컨퍼런스

- 14:30-15:00 **등록 및 인사말**
사 회 : 김창호 _한신대 교수
인 사 말 : 채수일 _한신대 총장
- 15:00-16:00 **발제**
서울 동북부의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
전병유, 한신대 교수 / 정건화, 한신대 교수
서울 동북부 지역현황과 협력과제
김성환, 노원구청장
서울 동북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와 좋은 거버넌스
서진아, 강릉포럼, 좋은정치노원씨어터팀
- 16:00-16:20 **대표토론**
서울시장 비전과 서울 동북부 도시발전 전략
박원순, 서울시장
- 16:20-16:35 **휴 식**
- 16:35-17:35 **종합토론**
박원순, 서울시장
박경수, 강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전병유, 정건화, 한신대 교수, 김성환, 노원구청장, 서진아, 강릉포럼
- 17:35-18:00 **질의 응답**



2012. 1. 12(목) 14:30-18:00

- 장 소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컨벤션홀
- 주 최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서울평생교육원,
학술원 사회혁신경영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강릉포럼
- 후 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eb생북
- 연락처 02_2125_0129

지역격차의 악순환 (vicious cycle) 구조





자치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보다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더 심각. 빈곤 자치구는 주민들의 이탈(exit)을 초래하여 자치구의 빈곤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vicious cycle)구조가 고착될 가능성 높음

-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공간의 서열화, 계층화를 결과하여 주민간 위화감과 반목을 유발



동북4구 지역협력의 발전경로: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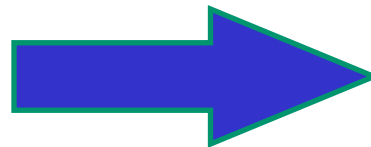
규모의 경제: 지역간 협력

- 지역간 협력은 지역내 지역주민, 기업, (대학)연구소 등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충족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데에 의의
- 단일행정구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지역내 자원 부족, 인력 부족, 기술 부족 등)을 여러 지역들이 모여 해결하는 데 목적

범위의 경제: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



- 자치구 별 보유자원에 기초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된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간 교류를 통해 유통과 소비를 확대하는 지역간 교류 및 거래 협약
- 선순환적인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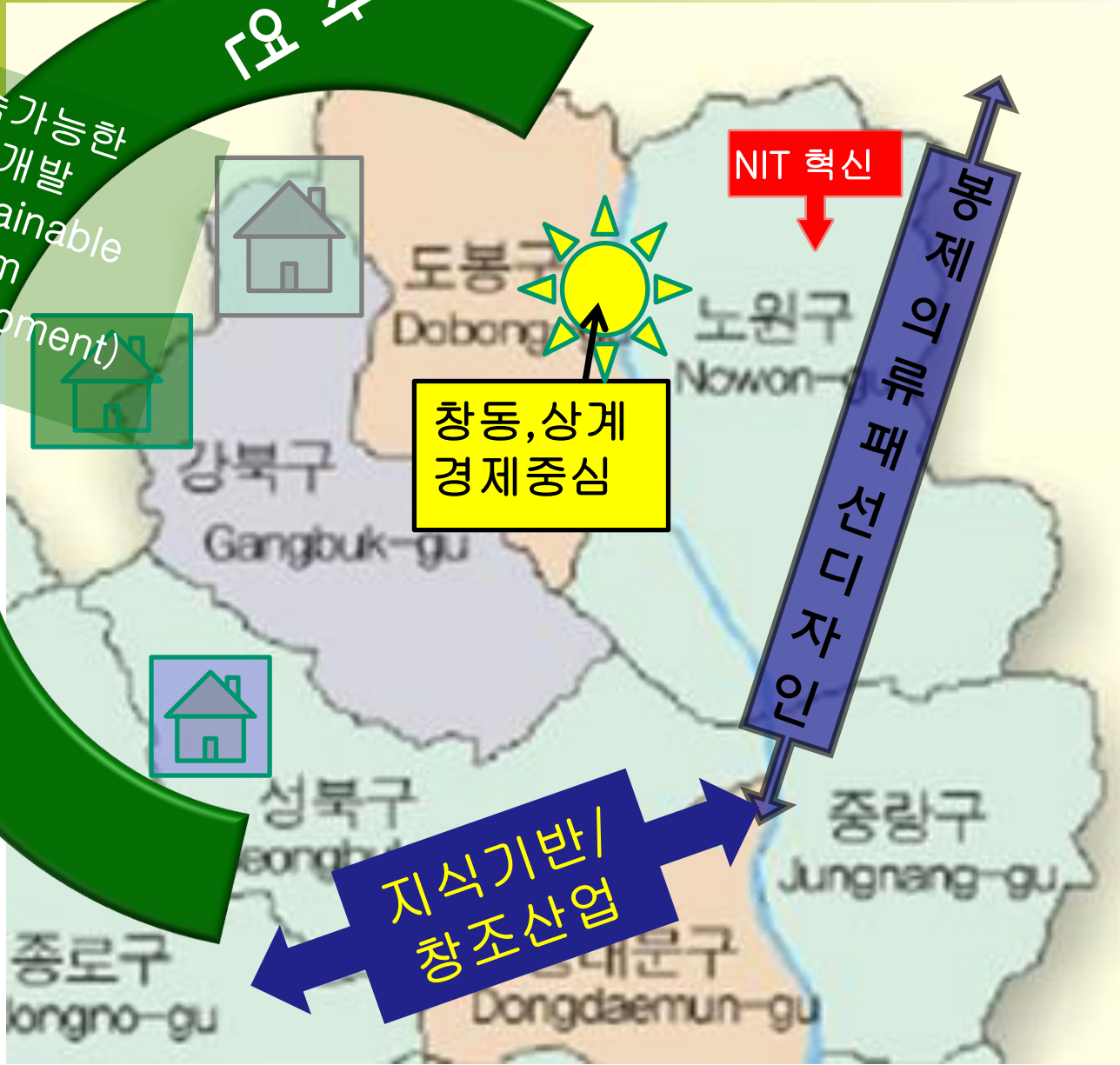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역사문화

자원



창동, 상계
경제중심

NIT 혁신

봉제의류패션디자인

지식기반/
창조산업



장기적 관점이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여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비현실적인 공동계획 등으로 협력사업이 지속되는 데 장애물이 많을 것임. 이러한 어려움이 다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강화시키기도 함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간 정보교류, 협력아이템 발굴,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유럽연합(EU)의 Interreg 프로그램이나 스웨덴-덴마크의 웨레순드 지역의 협력프로그램은 현안 대처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지역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실행주체 양성 필요

서울 동북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센터 설립 제안

서울 동북부 지역 차원의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시범사업 실행 등과 자치구간 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 NPO지원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Think & Do Tank

4자치구, 지역의 대학들,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 네트워크 방식으로 설립, 중앙정부 부처나 서울시로부터의 용역과제 와 위탁과제 수행으로 운영재정 충당

2012년 1월 12일 서울시장 초청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발표자료 중

지난 두 차례의 심포지움에 이은 오늘
의 행사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 (2012년 5월 15일)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운영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역사·지리·문화적 동질성과 동일 생활권역으로서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협력적 권역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의제 발굴과 공동의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북4구를 대표하는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1 동북4구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명칭은 『동북4구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2 협의회는 각 자치구청장과 주민/시민사회대표, 한신대학교, 전문가를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치구 실무자를 포함한 협의 및 사업실행 팀을 두어 업무를 지원하게 한다.
- 3 협의회는 동북4구 발전에 관한 의제를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와 적극적인 협의 또는 (필요시 협약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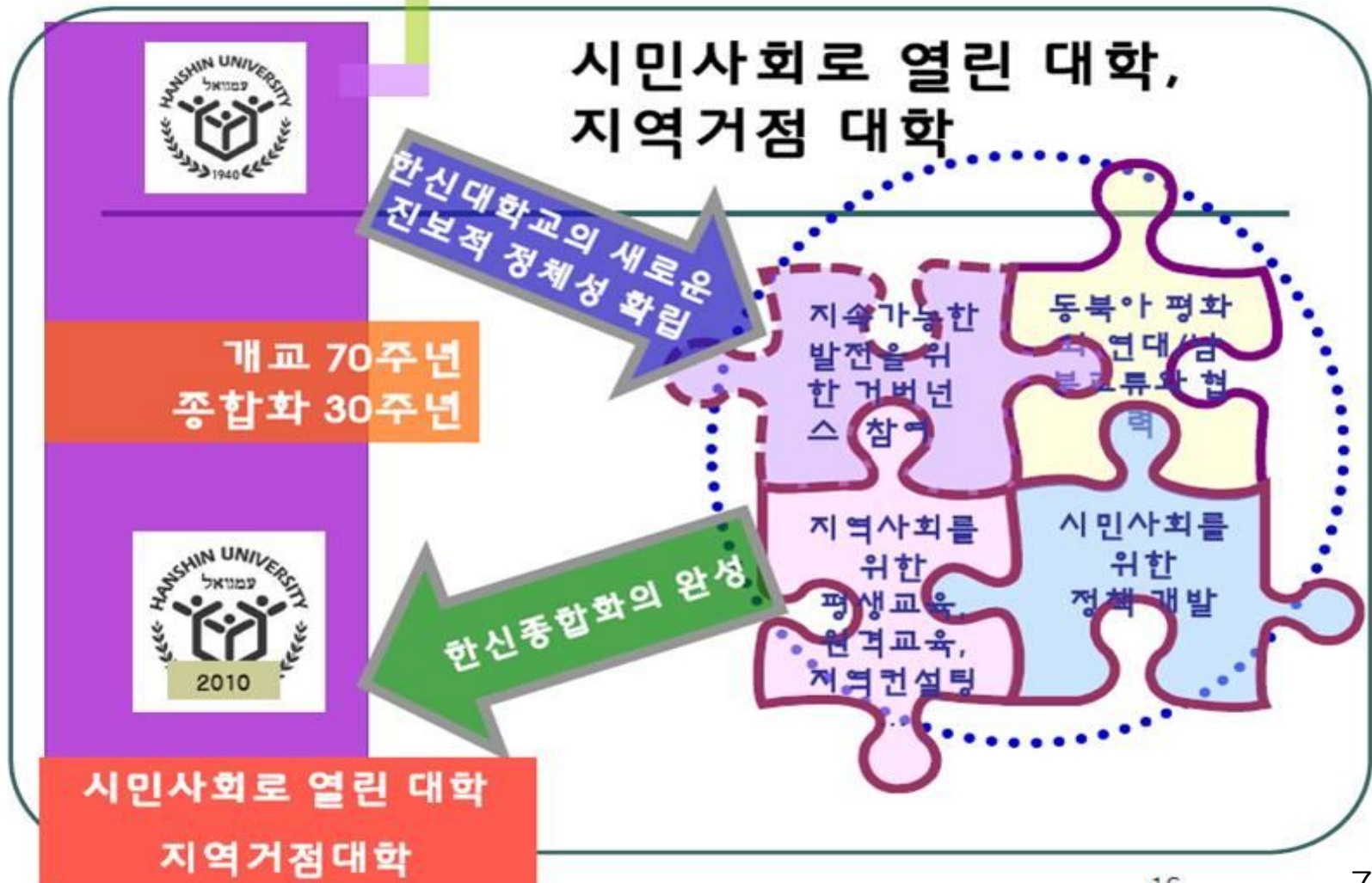
4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꾀 수행하고 상호간의 긴· 공동발전, 나아가 서울 상호 협력한다.

5 협의회는 창조·혁신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 등을 통하여 동북4구 지역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꾀

2012



대학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





연구,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클러스터 모색

2012년 11월 27일 (화)
준공된 만우기념관
(3층)을 채운 지역관
련 단체들:
강북 사회적경제 특
화사업단, 강북 마을
넷,
동북 4구 발전 연구사
업단,
사회적 금융 연구소,
주)역사만들기...





서울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구성주체로 참여하는 대학

기획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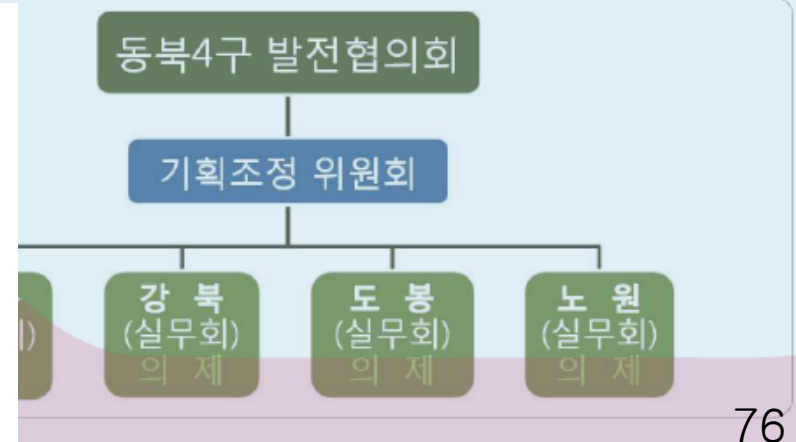
- 지 위: 실무위원회 보고사항을 조정하여 협의회에 상정
- 구성원: 구별 부구청장 4, 시민사회대표 4, **한신대학교수**, 서울시 추천 전문가 1명 등 10명
- 역 할: 실무위원회 추진사항을 동북권 차원에서 조정 및 협의
- 회 의: 정례회(월 1회) 또는 수시

[성북·강북·도봉·노원구] 실무위원회

- 지 위: 구별 의제를 추진하는 실무위원회
- 구성원: 기획국장, 기획·의제과장, 시민사회대표, 전문가 등
- 역 할: 의제실현을 위한 실질적 업무추진 위원회
- 회 의: 수시

동북4구 공동발전 의제 (Agenda)

주관구	의 제 (안)
성 북	▶ 동북4구 마을 만들기 협력사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강 북	▶ 역사·문화·관광 벨트 만들기와 최고고도지구 완화
도 봉	▶ 개발가능 부지를 활용한 문화창조산업 벨트조성과 도시 활력 증진모델 만들기
노 원	▶ 권역 내 혁신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도시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 강화 방법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는 계획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대학부지에 건물을 지어주는 **하드웨어** 방식 지양

대학과 지자체, 주민/시민단체가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방식 필요



미국 지역사회파트너십 센터(COPS Center)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s]

미국 연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재정지원 프로젝트(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s)는 1992년 미국 연방정부가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모델개발을 위해 5년 시한의 시범사업으로 승인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도시개발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관리, 그 배경은 과거 정책주도형 도시개발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에 기인 (50-60년대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슬럼지역을 철거하고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재개발 프로그램의 실패)



지역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위한 연구와 조사 시행 (2012년 10월)

동북부 권역의 시민참여형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안)

I. 배경과 목적

□ 동북4구 협의체 구성과 권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함

- 동북4구는 하나의 생활 및 생산 권역으로서 직주통합을 위한 지역 내 고용기회 창출, 환경친화적 개발 모델의 수립시행, 지역공동체에 토대를 둔 마을만들기 등 4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며 아래로부터의 주민참여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동북4구는 2012년 5월 주민참여형의 협력적 권역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4구가 협력하고 공동대응할 지역 의제를 발굴하며 공동협력사업의 실행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4구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행TF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동북부협의체를 구성하였음.

□ 동북4구의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로서 지역 조사와 연구 사업의 필요성

- 동북4구 협의회 협약서에서는 창조·혁신산업, 문화·역사·관광산업, 마을만들기·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성화, 도심계개발의 대안적 모델만들기 등을 통하여 동북4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제의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동북4구 공동발전, 나아가 수도 서울 균형발전의 결실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하였음.

「동북4구-서울시 공동협력기구」 동북4구 지역발전 조사·연구 용역 실시(안)

1. 추진근거

- 「동북4구발전협의회」 MOU 체결: 2012. 5. 15.
- 「동북4구발전협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012. 6. 27.
- 결과보고서: 동북4구 예산 분담 결정 (기획예산과-6048, 2012. 7. 5.)
- 「동북4구-서울시 공동협력기구」 실무T/F 개최: 2012.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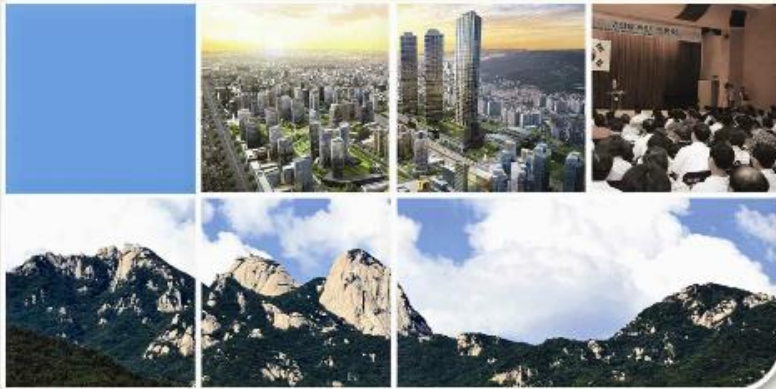
2. 구별 의제 조사·연구

- **성북:** 동북4구 마을만들기 협력사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연구용역 관리·감독: **성북구-의제별 실무위원회**
 - 동북4구 사회적경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의 모범사례 발굴
 - 동북4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 동북지역 자립적 순환경제 체계 구성 위한 지역자원조사와 연구
 -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촉진 및 지원 활성화방안 수립
(사회적 경제 공급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 동북4구 자치구간 및 동북4구-서울시간 협력방안 수립
 - 사회적 경제 협력사업 추진 단계 타당성 연구

구 분	1단계 협력적 생태계기반 구축	2단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3단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시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2014년
추진방향	시범사업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	사회적경제 관련 합동 토론회 개최 ·자원조사 및 협력사업 모델개발 용역시행 ·사회적경제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마을만들기 협력사업 시범 추진 ·동북4구 사회연대경제 포럼 구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회적경제 투자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사업체 창업 경진대회 개최 ·사회적경제 제품 교차 구매체계 구축 ·마을만들기 협력사업 추진 ·동북4구 사회연대경제포럼 운영	·사회적경제 사업체간 연계 및 연합체 구성 ·사회적경제 협동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형 동북4구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013. 8

win6korea
원지코리아컨설팅

서울시 강북·노원·도봉·성북

동북4구 100인회의

공생공영(共生共榮)
동북 4구가 함께 살고 함께 발전할 길을 모색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위해
동북 4구가 함께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직접, 그대주세요

일시 2013년 7월 15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도봉구청 2층 대강당
참가대상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에서 살거나/일하거나/공무하는
만 15세 이상 누구나
참가방법 **신청서제출**

신청기간 7월 10일(수) 18:00~14시: 2013. 7. 10(수) 18:00~21:00 (신청기간 내 마감)

주제

- 지역 활자리를 만드는 방법
-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 재택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 방법
-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문화와 예술이 풍부한 동북4구를 만드는 방법

이 외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동북 4구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

문의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주성희 연구원 | 02-3034-2162 | sunny02@makohp.com
김지형 연구원 | 02-3034-2165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488 (동대문) 110-711
전화: 02-3034-2162 (주) 02-3034-2165 (분)

지역별 지원 시
강북구: 02-3034-2162 (주) 02-3034-2165 (분) / 노원구: 02-3034-2162 (주) 02-3034-2165 (분)
도봉구: 02-3034-2162 (주) 02-3034-2165 (분) / 성북구: 02-3034-2162 (주) 02-3034-2165 (분)

MAKOH(주) 희망제작소 연구원 시
지점: 1107 - 1107MA, 140 - 140MA, 도봉역, 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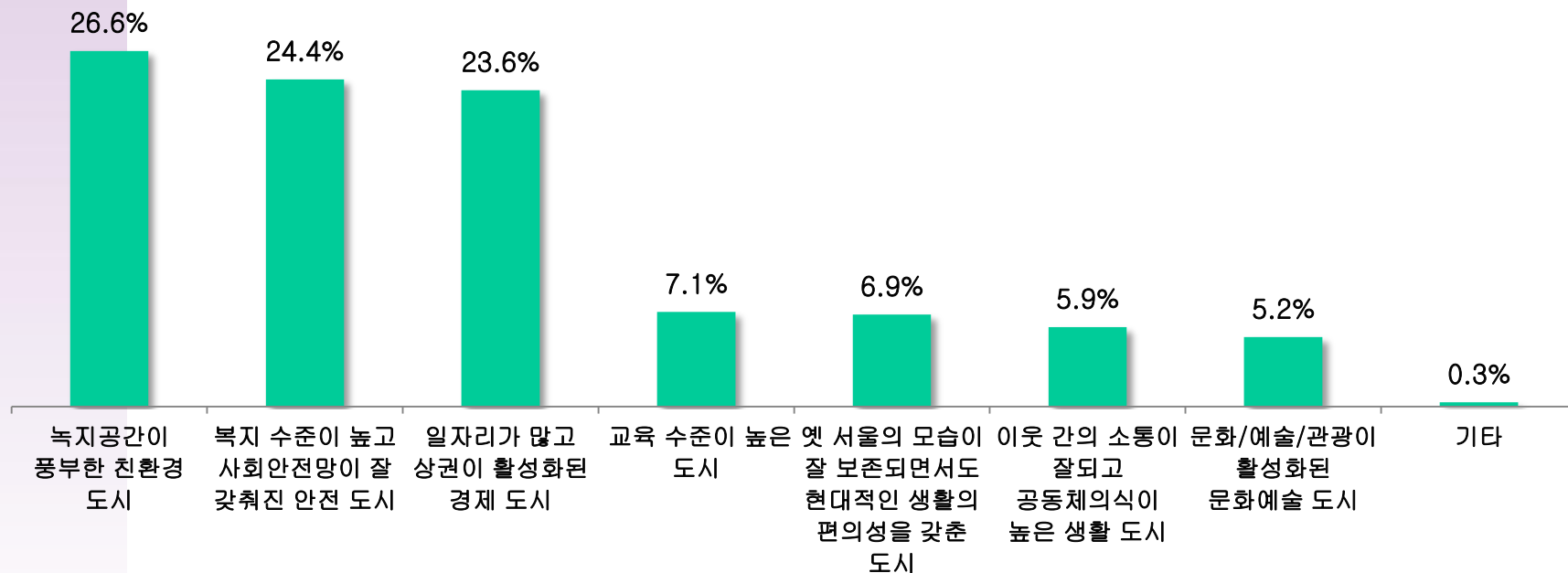
주최 희망제작소, 노원·도봉·성북·강북구청, 동북4구 발전연구단

주관 희망제작소
The Makoh Institute



동북 4구의 미래에 대한 의견

발전방향으로 '친환경도시, 안전도시, 경제도시' 를 꼽음



동북4구 발전전략: '균형, 연계,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와 인간안보(Hunam Security)

- '과거의 유산'에 대응하는 '균형 발전' 전략 + '현재·미래의 위험'에 대응한 '연계·협력을 통한 자족적 순환체계를 갖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측면에서 식량, 에너지, 주거, 환경 영역에서의 '생명선'(life line) 강화 필요





식량: 자급, 근거리 공급: 분산된 다원적 생산·유통
식량민주주의: 생산의 직·간접적 참여, 친환경·유기농 식량안전 확보 및 소비접근권 보장
로컬푸드 네트워크: 인접지역과의 수평적·보완적 연계, 푸드마일리지 축소

환경: 건강한 생활 환경: 수질, 대기 질, 토지질 개선 및 관리, 소모원천의 자원화: 순환과 재순환,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자원화

지속가능도시 동북4구:
연계, 순환, 재순환을 통한
기본적 필요의 충족

에너지: 지속가능한 다원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자급, 근거리 공급: 지역분산형 생산체계(협동조합), 절약 등 수급안정성 증대

주거: 장기적 공급구조: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구축, 주거유형별 연한별 저비용의 재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유지·관리 사회적기업, 세대통합형 주택단지 개발(유아, 청소년, 노인 교육·케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반영 제안

역사·문화·관광벨트 만들기

▶ 목적

- 개발에 제약이 되는 **자연요소를 활용 및 관광 자원화**

▶ 내용

- **캠핑장 등 숙박가능시설 설치 여건 마련**
 - 건축법 : 야영장
 - 개발제한구역 : 피크닉 및 야영장
 - 관광진흥법 : 자동차야영장업



캠핑장(야영장)



캐라반



오토캠핑장



캠핑카



서울시 동북4구 발전 종합계획(안)

1. 창동상계 광역중심 조성

03 추진방향

동북4구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적극적 참여

최근 2030 서울플랜안 수립, 협의체 구성 등 지역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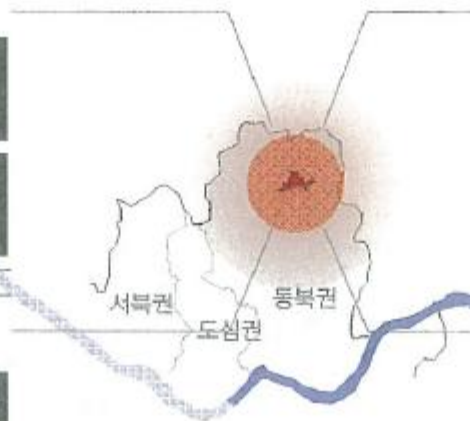
<2030 서울플랜안 수립>

중심지 위상 강화
(지역중심 → 광역중심)

균형발전 실현방안 구체화
(강남북균형 → 지역특화발전)

<시 지원기반 마련>

현장시장실 큰구시정 등 지역여건을
적극 경청하는 시정분위기



<동북4구 발전협의체 구축>

지역의 합의된 발전방향
(“동북부의 신경제거점 조성”)

지속가능한 실행체계
(대학, 주민단체, 자치구 등)

<국토부 시설이전 논의가시화>

타당성 자원조달 등
실행방안 협의, 검토 중

서울시 동북4구 발전 종합계획(안)

Ⅶ.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01 사업 성격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지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사업

-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총 214개 (약 1,000명, 지역고용의약 0.3% 수준)
- 대부분 영세, 기술·자본이 취약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형 기업 육성 필요



→ 지역의 추진의지 등 형성된 여건을 토대로 공공이 적극적 지원·육성

서울시 동북4구 발전 종합계획(안)

VI.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04 실행계획(대안2)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적 모델로 육성

- 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사항 통합적·종합적 지원
- 우리시 균형발전의 핵심 실행기구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 운영 (생활권계획, 도시재생 등)

운영주체

지역 내 대학(학생, 교수 등), 주민
주도로 운영

※ 자치구, 서울시는 지원
(필요시 직원 파견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
(도시재생 추진방안 연계 14.~)

공간확보방안

단기적으로 대학 내, 시·구유지,
장기적으로 거점개발과 연계하여
공간확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14.상반기)

4. 동북4구 협력적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선결 조건

- **동북 4구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동북 4구 사회적 경제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동북 4구 지역특화 사업단 협의회의 구성 등
- : 사회적 경제의 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의 유입**이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될 필요
- **공동 협력사업의 경험 축적**: **동북 4구 공동의 지역자원조사** 사업이나 **공동의 경영지원단** 등

●●● 조사와 연구

- 2012년 3월-11월, 우리나라 전국 650여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향후 5개년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동북4구내 도봉구를 대상으로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 구성주체(NPO 등)를 포함한 지역생태계 조사도 함께 진행 (한신대)
- 마을 만들기 협력사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연구(2012.10-2013.12)의 중요 의제
- : 장기적으로 동북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동북지역의 자립적 순환경제 체계 형성을 지향



동북·4구 공급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동북 4구 사업단의 협력**으로 접근할 때, 효과가 높고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 존재
- 공공, 민간, 사회적 경제 등에서 **공동의 시장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모색
 - : 동북 4구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간 공동 유통 채널의 확충, 공공시장의 교차거래 허용제도 도입, 공동 구매지원센터 혹은 판로개척지원단 설치, 운영
- **공간이나 금융** 등의 자본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 고용노동부의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나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지원사업** 등 활용
- 사회적 경제 인력육성을 위한 공동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기획·추진, **전문적인 인력 육성** 센터의 설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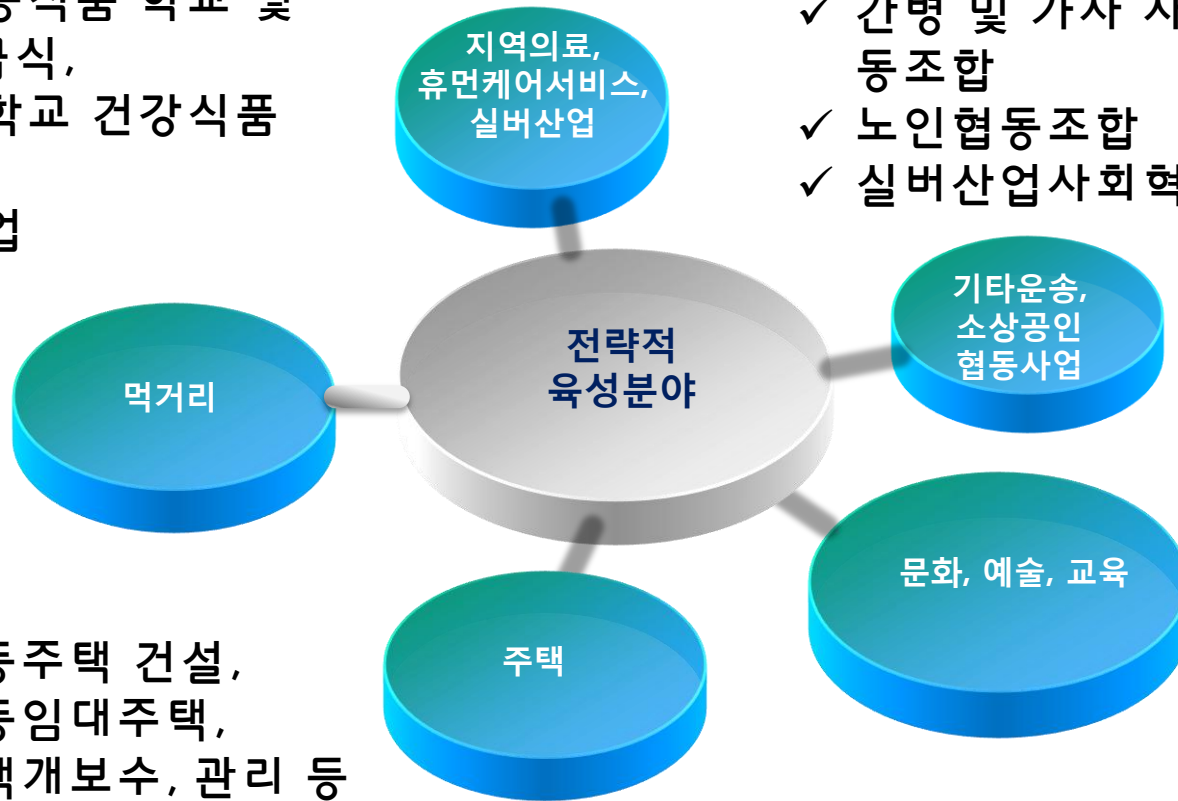
목표와 기본전략

1. 향후 10년 내 1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2. 사회적경제의 장점 (서비스수혜자 맞춤형, 다양한 자원 연계, 민주적 참여방식) 최대한 발휘 전략
3. 상향식과 하향식의 결합 발전전략
4. 콘소시움 등을 통하여 가치사슬의 전후방 진출 전략
5. 국내외 전문가로부터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도입
6.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의 연계 전략

수요전망 분석에서 도출한 전략적 육성 분야

- ✓ 친환경생활재공급,
- ✓ 친환경농식품 학교 및 단체급식,
- ✓ 중고등학교 건강식품 매점,
- ✓ 도시농업

-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 육아협동조합
- ✓ 간병 및 가사 사회적협동조합
- ✓ 노인협동조합
- ✓ 실버산업사회혁신기업



- ✓ 공동주택 건설,
- ✓ 공동임대주택,
- ✓ 주택개보수, 관리 등

추진 전략

● 전략

4대 영역의 인프라를 각 단위에 분할 배치

지역별 전략 인프라의 선택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융복합/연계/협업

(가칭) 동북4구 사회적 경제 공동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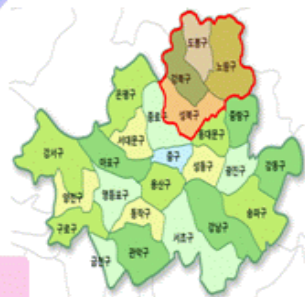
● 인프라 배치 구상 (안)

동북4구 사회적 경제 마케팅 지원 센터 : 도봉구

동북4구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센터 : 강북구

동북4구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역재단 : 노원구

동북4구 사회적 경제 협동화단지 : 성북구





서울시·동북4구 발전 종합계획(안)에 반영예정

Ⅵ.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03 실행계획(대안1)

체계적인 실행·지원을 위해 4대 영역의 중간지원시스템 설치·운영

- 동북4구 공동인프라 구축 : 금융, 마케팅, 인재육성, 협동화단지 분야
※ “동북4구 사회적혁신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검토
- 실행 주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설치·운영 (※ 연구단 제안사항)




향후 과제

- 민주주의와 공동선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이를 실행할 **시민사회 역량**의 축적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주체적이고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과 학습 필요.
-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도화**시켜 지속성을 담보하는 노력 필요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사회, 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간의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과제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난한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토론 : 동북 4구 지역협력 실험의 평과와 과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Bouchard, Marie J. (2013-03-07).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 (p. 2). University of Toronto Press, Scholarly Publishing Division. Kindle Edition.
- Cameron, J. 2008. The Contribution of Community Enterprises to the Development of Regions, Australian Regional Economy Conference 2008년 5월 발표문.
- ILO, 2010. Global Jobs Pact Policy Briefs, No.10., 2010, The Resilience of Social and Solidarity Enterprises : the Example of Cooperatives.
- James A. Phills Jr., Kriss Deiglmeier, & Dale T. Miller,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Fall, 2008.
- Keohane, Georgia Levenson. Social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nnovation Across the Nonprofit, Private, and Public Sectors, McGraw-Hill. Kindle Edition, 2012.
- Sandel M. 2010a. 안진환, 이수경 역,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 2010.
- Sandel M. 2012. 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Allen Lane, 2012.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 the Office of Advocacy, Social Entrepreneurship and Government: A New Breed of Entrepreneurs Developing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2008.
- 강풀포럼, 2012.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2012년 1월 30일 발표 및 토론 요약자료).
- 김동렬, 201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서울 시정연웹진, 97호, 2012년 7월 23일자
- 장종익, 201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금천구청 사회적경제 포럼 발표문, 2012. 4. 18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 제 6권 제 1호, 2008.